



아이폰 폭등 우려?… 한발 또 물러선 트럼프

## 美 반도체·스마트폰 ‘관세 제외’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주말 사이 낭보가 전해졌다. 워싱턴이 석 달 후 매기게 될 관세(잠정 10% 이상) 품목에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이 예외 적용을 받을 것이라 소식이다. 언론 보도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전자기기 물가의 큰 폭 상승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이 세계 각국에 부과를 추진하는 ‘상호관세’에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제외됐다.

미국토안보부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특정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제외’ 지침을 공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반도체 등이 2일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지침에는 또 반도체, 태양전지, 평면 패널 TV 디스플레이,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기타 전자장치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제외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시장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물론 스마트폰의 4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對)베트남 상호 관세율은 46%에 달한다. 13일 오후 기준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특별한 공식 입장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등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둔 대형 부품사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향후 상황이 또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국 석탄산업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AP·뉴시스

자국 전자기기 물가상승 우려 반영  
스마트폰·노트북 등 상호관세 제외  
삼성전자·하이닉스·애플 등 숨통  
韓, 국내 조선기술 협상카드로 검토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애플은 스마트폰 제품의 90% 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이와 같이 애플 등 기술집약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침이 제시됐다고 CNBC는 전했다. 애플은 세계 최대 기업이자 미국을 대표한다. 자국민들의 물가 상승 체감도가 높아지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애플 아이폰은 중국시장에서 제작이 돼도 관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수위를 공개할 당시, 반도체와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의 개별 품목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으나 이 품목들 관세 방침에 대한 유지·수정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조선부문 협력을 지렛대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깝고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업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에 조선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협상에서도 유용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미국 내 조선소수는 80% 이상 줄었고, 연간 건조 능력도 5척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올해 1~3월 누적 기준 세계 수주 점유율 27%를 차지했다. 중국이 49%로 1위에 자리했고 일본은 2%로 3위에 올라 있다. 중국 경제가 목적인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동물실험 대신 오가노이드’ FDA, 신약개발규제 대전환

AI·장기모사체 활용해 독성 분석  
비동물 시험자료에 인센티브 제공  
오디세이 등 국내 관련기술 관심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오가노이드(장기 모사체)로 대체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적은 비용으로 신약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기존 동물 실험 약물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약 개발 패러다임 전환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는 지난 10일 단클론 항체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모델, 오가노이드와 오가노침 기술 등을 활용해, 빠르고 안전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면서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FDA는 앞으로 AI를 통해 약물이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예측하고, 독성 반응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간, 심장, 면역기관 등 인간 장기를 모사한 실험실 기반 모델을 활용, 동물 실험에서 포착되지 않는 인체 반응까지 평가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신약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DA는 기존 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정, 비동물 기반 시험 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제출한 제약사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A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더 안전한 치료제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

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틴 A. 마카리 FDA 국장은 “이번 변화는 환자에게는 더 빠른 치료, 과학계에는 이전 보다 정밀한 시험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수천 명의 동물이 매년 실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국내 오가노이드 관련 기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내 첫 오가노이드 기반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현재 동물실험 없이 첨단 의약품과 신소재를 정확히 평가하는 평가 솔루션 ‘오디세이(ODISEI)’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도 공급 중이다.

▲오디세이-ONC(종양) ▲오디세이-GUT(장) ▲오디세이-SKIN(피부) 등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40여건의 수탁계약을 맺었다. 이번 FDA의 조치로 이러한 독성 평가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오디세이는 인체와 유사한 장기를 사용해 종간 차이에 의한 간극을 좁히고, 윤리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다”며 “최근에 ADC와 항암 백신 등 새로운 모달리티 약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물 평가의 기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유효성 독성 평가 모델로 오가노이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m-커버스토리

## 기술은 기본… ‘수익 모델’ 있어야 투자유치도 수월

###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

‘기술’보다 실질적 사업모델 주목  
“숫자로 증명 못하는 기술 의미없어”

스타트업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매출과 시장성을 중시하며, 단순히 기술을 증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액셀러레이터 벤처포트의 정하윤 이사는 “기술은 이제 기본이다.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들은 이에 따라 초기부터 수익 모델을 명확히 하여 피칭에 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동안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3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며, 투자 금액은 1조2824억원

으로 4% 줄었다. 초기 투자시드~시리즈A)도 181건으로 29% 급감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검증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벤처캐피털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금리와 펀드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리스크가 낮은 중기 이상 레벨(데스밸리 7년 이상)이나 이미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

한 선호가 높아졌다.

지난해 AI 산업에 집중됐던 투자도 올해 들어 크게 감소했다. 기술력만으로는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 모델을 보유한 인프라 기업에는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단순 AI 활용 기업들은 외연받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사업성과와 시장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투자받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 한파를 돌파하기 위해 정책 자금과 직접 투자 확대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원 규모의 초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티스(TIPS), 정책융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역시 기술 보다는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창업기업들은 여전히 자체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매출 기반을 갖추거나 빠른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한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메트로 한줄뉴스

▲ “청년들만 남아 달라”…尹 ‘과감 대학생 포옹’ 연출 논란  
▲ 안철수, 유승민 국힘 경선 불참에 “전적 공감… 힘 모아달라”

/사진 뉴시스

▲ 김동연, ‘당원·여조 50 대 50’ 경선률에 “둘리리 경선 유감”  
▲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공동선대위 제안… 연합 정부 구성도 협의”

▲ 이재명, 출마 후 첫 일정 퓨리오사AI 방문… “성장경제 행보”  
▲ ‘대선출마 선언’ 나경원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 이화장 방문

## 끝나지 않은 트럼프發 관세전쟁

# ‘관세유예’ 한숨 돌린 전력기기 업계… 美공장 증설 박차

제조업 회기에 전력난 심화 초래  
전력기기 압박 쉽지 않을 것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북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던 전력기기업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상호관세 발표 당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지만 일정 부분 여유를 확보하며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전력기기 업계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 기존 25%였던 관세가 10%로 낮아지면서 성장세를 이어가던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일부에서 제기됐던 수출 차질 우려도 완화된 분위기다.

당초 미국의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붐은 빅테크가 AI 데이터센터 등 AI인프라 구축에 대규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 변압기.

## HD현대일렉트릭

美 앤디케이 2공장 증설 진행 중  
2028년 연매출 3000억 증액 전망

## 효성중공업

멤피스 증설 후 추가증설 검토

## LS일렉트릭

반덤핑관세 적용, 관세영향 클 듯

모 투자를 이어가며 확산돼 왔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을 경우 기업들도 투자계획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자국 내 제조업 회귀(리쇼어링)를 가속화 전력난 심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전력기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세 압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업계는 수요 흐름이 견조하더라도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적 영향 가능성에 열려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사는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리스크 대응에 한창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앤디케이 제2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다. 울산과 함께 미국 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오는 2028년에는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

효성중공업 또한 멤피스 공장 증설 완료 후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아직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텍사스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선 LS일렉트릭이 국내 주요 변압기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초 국내 주요 변압기 제조업체들에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 통보했다. LS일렉트릭은 16.87%를 부과 받았고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은 반덤핑 관세를 피했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현지 생산 시설 유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일렉트릭은 미국에 초고압 변압기 생산공장이 없고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회사의 지난해 연간 미국향 매출 비중은 37%로 지난 2020년대비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에선 반덤핑 관세율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국내보다 북미 판매가격이 훨씬 높은 상황이기에 향후 반덤핑 관세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도.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자국 내 제조업 회귀를 촉진시키고 전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관세 압박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업체별 생산 능력 확대가 향후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에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車 부품업계, 존폐 위기… ‘울며 겨자먹기’ 美 현지화

완성차 업체는 버틸 체력 있지만  
車 부품업체 95% 이상 ‘영세업체’  
생산 감소 등 연쇄타격 가능성 커  
일부 美 현지화, 일자리 감소 우려

“국내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현지화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건지 답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전쟁으로 우리의 수출을 견인하는 자동차 산업에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자국에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지난 2일(현지 시간)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부담이 견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

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1%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금액은 51조원에 달한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등 미국 수출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체는 버틸 체력이 있지만 부품 협력 업체들은 존폐 위기까지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 HMGMA(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앨라배마(현대차) ▲조지아(기아) 기존 공장과 함께 미국에서 연간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HMG MA는 향후 2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추가 증설을 통해 미국 내 생산규모를

120만대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한국GM은 전체 생산 물량의 85%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GM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한 총 49만9559대 중 미국에 수출한 물량은 42만대에 달한다. 인천 부평공장 철수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버틸 체력’이 있는 완성차 대기업과 달리 많은 부품사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5월 3일 이내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 부품업체의 연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 19 시절보다 위기감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부품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약 2만여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으며 이중 95% 이상이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미국의 관세 부과시 수출 위축과 함께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정했다.

일부 규모가 큰 1차 협력 업체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국내 부품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의 미국 생산량 확대 전략에 맞춰 생산 기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며 “(우리회사의 경우) 트럼프 관세부과로 국내에서 부품을 수출할 경우 1년간 10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공장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제조업과 고용의 중추 역할을 해온 자동차 산업이 현지화에 속도를 높이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완성차·부품 산업부터 정책금융 등 3조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늘리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주요국과의 협정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조원의 긴급 유동성 투입과 함께 내년 정책금융 자금을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금융지주 핀테크기업 ‘금융사 소유’ 가능해진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주사, 핀테크 지분 15% 출자 허용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 내 핀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등의 기술과 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금융사가 만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 서도 15%까지 출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출자 범위를 15%로 확대한다.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는 적정 규모의 지분투자를 통해 협업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자 등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AI 등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우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업무는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단,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경우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GP)으로 기간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26일까지다. 금융위는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조사위 구성

국토부, 수습복구·불편 해소방안 논의

논의했다.

정부가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및 도로 파손 사고와 관련해 전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백원국 2차관이 주재하는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경기도, 광명시,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인 네스트레인 등이 참여해 구조 현황 및 현장 조치상황을 점검했으며, 조속한 수습복구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사고 당시 2명이 매몰됐으나 전일 한 명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실종자 1명은 크레인을 이용해 잔해물을 제거하면서 수색 중이다. 사고 지점을 포함해 오리로 양방향 1km 구간을 통제 중이며, 주변 지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표계 및 구조물 경사계를 추가 설치하고 주변부 지반 탐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거쳐 광명시에서 주민대피명령은 해제한 상태다.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를 구성키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AI·친환경도 ‘매출·사업성’ 따진다

## “기업 성장 가능성이 투자규모 좌우”



/유튜이미지

### 투자시장 양극화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한파가 올해 1분기에 이어졌다. 벤처캐피탈(VC)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 라운드에서의 투자 위축이 뚜렷하다.

벤처투자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 건수는 2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 금액도 1조 2363억 원으로 4% 줄었다.

최근 3년간 1분기 투자 흐름을 보면 ▲ 2022년 609건, 5조 9685억 원 ▲ 2023년 384건, 1조 6031억 원 ▲ 2024년 318건, 1조 2824억 원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초기 라운드(시드~시리즈A) 투자도 전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초기 투자금은 시드 단계 1951억 원, 시리즈A 1조 53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 31%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도 이 흐름은 이어졌으며, 초기 투자는 181건(전년 대비 29% ↓), 투자금은 4049억 원(전년 대비 12% ↓)으로 집계됐다.

**불확실성 커지며 투자시장 한파**  
투자자들, 기대감 보다 성과 주목  
“기업지표·고객반응 중요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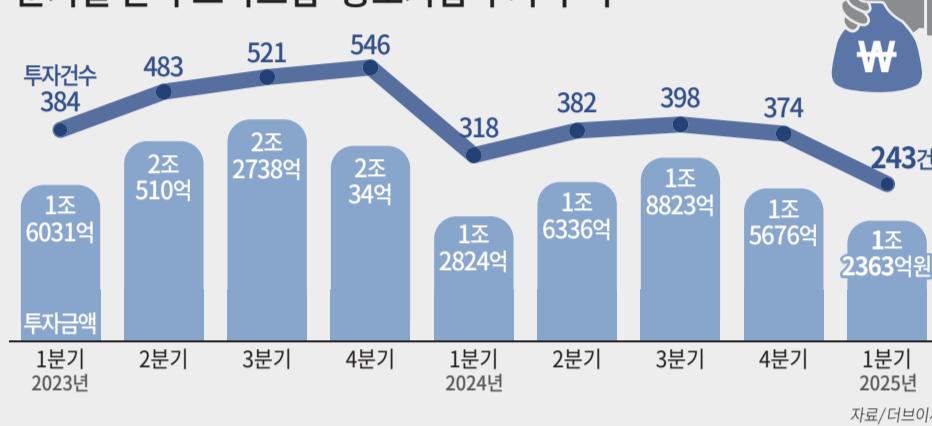
투자 위축에 따른 생존 부담은 실질적인 숫자로 드러난다. 지난해 상반기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스타트업 중 68곳이 폐업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다. 반면 중기 라운드(시리즈 B 프리 IPO) 투자 건수는 43% 늘었지만 금액은 21% 감소했다.

#### ◆ 높아진 투자자 눈높이

AI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투자 성공을 거둔 AI 스타트업들도 올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분기 AI 분야 투자 건수는 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고, 투자금은 1949억 원으로 37% 감소했다.

AI 산업은 여전히 기술 트렌드의 중심에

### 분기별 한국 스타트업·중소기업 투자 추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기준은 한층 높아졌다. VC업계는 벨류에이션 거품과 수익모델 부채를 AI 산업의 핵심 리스크로 지목하며, “기술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실매출과 시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모델을 개발하는 인프라 기업에는 자금이 몰리지만, 단순 서버 스형 스타트업은 실적 부족으로 외면받고 있다. 업계는 이를 ‘2차 AI 투자 사이클’의 시작으로 분석하며, 기술 중심 단계에서 벗어나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 ◆ 환경·에너지 분야 투자 증가… 해외 VC 도 관심 지속

올해 1분기 투자 증가가 눈에 띈 분야는 환경·에너지(2181억 원, 332% ↑), 엔터프라이즈/보안(1857억 원, 43% ↑), 패션/뷰티(1068억 원, 150% ↑), 음식/외식(691억 원, 21% ↑) 등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투자도 잇따랐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선 아모지(820억 원), 리코(585억 원) 등 두 건의 대형 투자가 돋보였다.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도 증가세다. 1분기 외국계 VC의 투자 금액은 7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더브이씨는 “미국의 굿워터캐피탈, 비알브이캐피탈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한 뷰튼테크놀로지스의 830억 원 규모 시리즈 B 라운드와 아람

코벤처스가 주도한 아모지의 820억 원 규모 시리즈 C 라운드 등 굵직한 투자 라운드들이 해외 투자 유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 정부, 유동성 공급… 매출 없어도 성장성으로

투자 한파가 지속되자 정부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시드, 프리 A, 시리즈 A 등 초기 투자 단계 중심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협업 확대, 텁스(TIPS) 프로그램 강화, 지역 창업 팀 발굴 등으로 생태계를 뒷받침하며, 초기 기업의 후속 투자 연계 체계도 정비 중이다. 특히 매출이 없는 기업도 성장성만 있다면 지원 가능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韓, 정부 주도 정책자금 지원**  
지역 창업팀 발굴 등 생태계 뒷받침  
단기 치방 우려도… “근본대책 필요”

정책금융기관들도 움직이고 있다. 기술 보증 기금은 스타트업 보증 한도를 상향했고, 중진공은 비즈니스 모델 기반 정책융자를 통해 초기 자금난 해소를 지원 중이다.

해외 진출도 강화된다. KOTRA, 중진공, 창진원을 중심으로 동남아, 중동, 북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지 VC 매칭, 데모데이도 병행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정책자금이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VC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마중물일 뿐,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 투자 회수 구조의 정비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역시 정부의 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증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고,

#### ◆ 살아남은 기업의 조건은?

투자 시장 냉각상태를 오히려 기회로 보는 스타트업들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만들어낸 곳’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한 SaaS 스타트업 대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꾸준히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투자자들도 그것에 반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 차례도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도 흑자를 기록해왔다.

전문가들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를 유인한다고 설명한다. 투자자 문화를 한 관계자는 “이처럼 생존 그 자체가 ‘신뢰자산’이 되고,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 유인’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 화려한 기술 데모나 비전보다, 현재의 지표와 고객 반응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를 잃는다. VC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은 ‘기술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비전 중심’에서 ‘지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1면 ‘기술은 기본…’서 계속

### “사업가형 창업자” 시대

유료 전환 전략을 빠르게 구사하고, 고정비를 줄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든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클라우드넷’은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빠르게 매출 모델을 구체화하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클라우드넷은 초기에는 고유 기술력에 집중했으나,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 유료 전환 모델을 빠르게 도입했다. 이 기업은 지난 1년간 고정비를 절감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처럼 사업화에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이제 ‘기술력’보다는 ‘사업모델’이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단기 위기를 넘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기술 중심의 성장 서사는 끝났고, ‘사업가형 창업자’가 시장을 이끄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세영 뷰튼테크놀로지스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뷰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뷰튼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최태원 “지역발전 4대 전략으로, 미래성장 거점으로 전환”

〈대한상의 회장〉

다큐서 상의 메가 샌드박스 설명  
인재육성·취업연계 교육 강조  
규제 체계, 네거티브 방식 전환  
해외기업 수요 고려 전략 제시

대한상의가 지체되는 산업 혁신, 부족한 일자리, 저출생, 지역소멸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난제들을 풀면서 지방에도 기회의 씨앗이 품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국민에게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13일 새로운 국가 리더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연구한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리고자 지난 12일 KBS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를 방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실현 방안으로 ▲인재 육성·유치 ▲인프라(AI 산업 기반 조성) ▲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인재 육성·유치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이 취업까지 연계되는 교육-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대학을 선택하면 졸업 후 원하는 일자리까지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프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

라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AI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하고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수준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수요 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큐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올해 초 CES 2025에서 토요타 아키히코 회장이 직접 소개해 화제가 됐던 우븐시티는 일본 시즈오카현의 옛 공장 터에 2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 중이다.

도요타는 이곳에서 자율주행, AI를 포함한 각종 첨단기술을 실험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나카무라 요시아키 센슈대학교 경제

학부 교수는 “도요타 같은 민간 기업이 참여해 이상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큰 의미”라며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인구가 모이고 그 주변 지역도 번창하는 긍정적 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국내 사업 여건은 아직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국내 최초로 소형 화물차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해 지난 2023년 텍사스에 진출했던 마스오토의 노재경 부대표는

“미국은 논리적으로 ‘이정도 기준만 충족하면 되겠다’고 판단되면 실험이나 출시를 허용해 주지만 국내에서는 이 중·삼중으로 규제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기술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 48분 분량의 다큐 전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최태원 회장의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좌담회 영상 전체 클립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에서 별도로 볼 수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박정원 “유럽은 제2의 홈마켓… 두산밥캣 혁신기술로 시장 선도”

〈두산그룹 회장〉

독일 뮌헨서 ‘바우마’ 현장 찾아  
“전동화·AI로 선도하자” 메시지  
밥캣, 소형 굴착기 등 신제품 공개  
무인·원격기술로 유럽 공략 박차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북미 다음의 유럽 시장은 두산밥캣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제2의 홈마켓이라며 ‘밥캣’만의 혁신기술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원 회장은 지난 7일부터 13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최대 건설기계 박람회 ‘2025 바우마’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두산그룹이 전했다. 두산밥캣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 박 회장은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 등 경영진과 함께 시장 현황을 살피고 경쟁사들의 신기술 동향을 직접 확인했다.

두산밥캣 총매출에서 유럽의 비중은 15~20%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이 독일 건설기계 전시회 ‘바우마 2025’를 찾아 두산밥캣 부스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두산

다. 특히 신기술 도입과 포트폴리오 확장 등으로 최근 4년 간 유럽시장에서만 연평균 8% 성장을 지속했다.

유럽 소형 건설기계 시장은 연간 16만 대 규모로 그 중 굴착기가 약 절반인 8만 대, 텔레핸들러 약 4만 대, 콤팩트

휠로더가 약 2만 대로 추정된다. 두산밥캣은 이번 행사에서 소형 굴착기 부문에서 신제품 4종을 포함한 12종의 모델을 선보이며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기존 건설, 농업을 넘어 재활용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텔레핸들러 부문에서는 전동화 제품인 ‘TL25.60e’ 컨셉트 제품을 전시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올해 34회째를 맞은 바우마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적 전시회로 글로벌 건설기계 테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미국 콘엑스포, 프랑스 인터마트와 함께 세계 3대 건설기계 전시회로 불린다. 올해 바우마에는 57개국 3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회장을 찾은 방문객은 약 60만 명으로 추산됐다. ‘전동화’와 ‘무인화’ 기술의 각축장이 된 이번 바우마에서 기업들은 전기 및 수소를 활용한 제품, 무인 및 원격 기술, AI 기반 솔루션 등 첨단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였다.

두산밥캣은 유럽 시장 주력인 1~2톤급 미니굴착기를 포함한 신제품 5종을 비롯해 무인화·전동화 첨단기술을 적용한 장비 등 총 4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부스 중앙에 위치한 ‘데모 존’에서 장비 시연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조종을 선보였고, 실내 전시장에는 조종석에서 가상현실 속 작업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회장은 “건설기계 글로벌 탑티어들이 무인화, 전동화 트렌드에 맞춰 어떤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만큼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 기술을 점검하고 먼저 앞서 나가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스카드로더와 완전 전동식 건설장비 등 ‘세계 최초’ 제품을 내놓은 혁신DNA를 바탕으로 전동화, 무인화는 물론이고 AI 적용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진옥동 “중앙아시아, 지속성장 기반 만들어 갈 것”

〈신한금융 회장〉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방문  
현지 금융당국 면담, 협력 방안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해 금융당국 면담 등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그룹 중 최대 규모인 7589억원의 글로벌 손익을 시현했다. 특히 신한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31억원의 손익을 시현하며 2

년간 연평균 23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진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글로벌 사업의 요충지로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그룹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진 회장은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등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금융 산업 발전 계획을 청취하고 미래 성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진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신한카드 현지 법인 신한카파이낸스와의 합작법인인 아스터 오토(Aster Auto) 본사를

방문해 자동차 판매 사업 현황을 들려보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내 ‘K-컬처’ 열풍으로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내 한국 문화 관련 전시관인 ‘한국관’ 개관 기념식과 현지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전달식에도 참석했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광복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멀티한 경로와 다양한 교류 확대를 통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알렉세이 바칼(Alexey Bakal) 아스터 그룹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 MAIN CHAIN AIM AGAIN

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의 중심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힘써 온 SK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해  
미래 산업을 정조준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SK**

# 국민의힘, 10여명 출마 전망… 민주당, ‘李 독주’ 속 견제

## 21대 대선출마 각축전

국민의힘, 오늘부터 후보 등록  
오세훈 불출마에 지지자 흡수 ‘주목’  
김문수-나경원, 연대 행보 보여  
李, 대권 행보 본격화… AI 현장 방문  
조국혁신당, 선출 없이 野 후보 지원  
김경수, 출마선언… 비명계 구심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맥도날드 중앙대학교점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국민의힘에서 10명 안팎의 주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의 의원을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속에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견제구를 날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4~15일 제21대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이 경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대선 경선 도전 후보는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룰에 반대하

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없을 시 최종 2인이 최종 경선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도화장성이 있어 유력 주자로 평가받던 오 시장이 불출마하자, 경선 구도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그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어느 후보가 흡수해 두각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이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대표가 오 시장을 향한 러브콜을 보낸 것도 그런 이유로 평가받는다.

이 외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

원 의원은 전날(12일) 나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중앙대학교 앞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 함께 참석해 ‘연대’ 행보를 보였다. 두 주자는 지난 11일 청년 보수단체가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1박2일 일정으로 영남권 시민을 만난데 이어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경선 승리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의 비전과 가치, 캠프 인선 등을 모두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앞두고 있다. 조국혁

신당이 자체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만큼, 민주당의 후보가 범야권의 대표 대선 후보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캠프는 현역 의원 14명이 경선 캠프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캠프 좌장엔 5선에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과 재선인 박수현 의원이 공보단장을 맡았다. 이밖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정무전략본부장을, 4선인 윤후덕 의원이 정책본부장,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캠프 대변인, 이해식 의원이 비서실장, 이소영 의원이 TV토론단장을 맡았다.

강유정 캠프 대변인은 13일 안규백 의원을 특보단장, 박군태 의원을 법률지원단장, 김병기 의원을 조직본부장, 박상혁 의원을 홍보본부장, 강득구 의원을 현안대응TF단장으로 추가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출마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AI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성장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 대표는 이번 일정에서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에서 앤비디아의 독점을 깰 한국산 기술력 현장을 직접 방문해 AI(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비전과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친노(친노무현)계, 친문(친문재인)계 적통이라고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비명계 구심점이 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 했다. 다른 비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봉과 현장을 찾아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 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도 대선 출마 가능성에 점쳐졌으나, 불출마를 선언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양당, 당내 경선서 ‘민심·당심’ 모두 듣는다

국민의힘, 경선률 비상대책위 의결  
민주당, 권리당원 50%·여론 50%  
일부 후보들, 경선을 결정에 ‘반발’



황우영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스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이 9일 오후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률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두 정당 모두 민심과 당심을 모두 청취하기로 하면서 일부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선률을 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총 세 차례 경선을 치러서 4명, 2명, 1명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1차 경선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선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2명을 추린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게 득표한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가 되고, 과반을 넘지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다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엔 응답자에게 지지 정당을 물어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에게만 선택 기회를 주고 민주당 등 다른 지지자는 배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경선률을 마련했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의 결을 거쳐 최종 경선률이 확정된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당

원 투표권은 12개월 전에 당원이 돼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 여론조사는 각 50만 명 씩 두 차례 실시한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주 동안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는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후보들은 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반대한 이들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반영 비율이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으면 유리하다. 반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찬성한 이들은 민심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민심 반영 비율을 주장한 후보들은 현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치러지는 조기대선인 만큼, 당심보다는 민심을 더 폭넓게 반영해야 보수 진영

을 다시 세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민심 100% 반영을 요구하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도 일부 주자들이 경선률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마치 ‘주대’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양상인데, 비명(비이재명)계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 경선)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측은 경선률 확정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국민경선 원칙을 파괴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헌신 짊어던지듯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선 거인단 없는 무너만 경선’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 국민의힘, ‘한덕수 차출론’ 목소리 커져

국민의힘 경선 후보, 경쟁력 약해  
韓 출마요청 성명에 50여명 동참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출마 철회 선언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선판이 요동칠 정도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이유는 본선 경쟁력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후보 중에 이를 누를 수 있는 대항마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호남 출신인데다, 정통 경제 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압력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대통령직을 지명하는 등의 모습이 ‘강단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총리라는 점,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점에서 비판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한 방송에서 “반명연대, 비명연대의 진영을 폭넓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당내에서 대권주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은 두 차례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외부에서 사실상 영입된 경우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22대 총선을 이끌기 위해 법무부장관직을 사퇴하고 임당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는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인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사고·질병 넘어 일상건강까지… 보험사, 웰니스 경쟁 속도

## 교보라이프플래닛

착한의사 제휴, 종신보험 가입자  
업계최초 건강검진 페이백 서비스

## 삼성생명 '헬스케어 파트너십'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손잡고  
고객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업계가 사고·질병 보장에만 머물던 틀을 깨고 가입 고객의 일상 건강을 전담하는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 검진부터 운동·영양까지 책임지는 통합 서비스를 앞세워 '웰니스(Wellness)' 시장 경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단순 보장에서 벗어나 가입자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돋는 통합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이달 업계 최초



보험사들이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업계 건강관리 서비스 이미지.

로 보험 가입자에게 건강검진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와 제휴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검진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고 추적 관리 패키지까지 지원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보험은 그동안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해야만 보

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 가입 기간도 길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아끼운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험을 통해 단순히 미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헬스케어파트너십'으로 고객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평균 수명 증가로 '젊음이 길어진 시대'를 맞아해 보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 '더헬스(THE Health)' 앱 내에 공단의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과 활동 인센티브인 '튼튼 머니'를 연계해 고객들이 체력 측정부터 생활 스포츠 참여까지 한 번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협약은 삼성생명의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며 "삼성생명은 공단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지역별 건강 및 질병 문제를 연구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및 노후 보장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KB라이프는 지난달 'KB건강매니저' 서비스를 리뉴얼하면서 디지털 기

반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구축으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KB건강매니저는 기존 건강정보 분석 서비스에 더해 '영양제 분석', '비급여 병원비 비교 기능'을 추가해 고객이 체계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맞춤형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돋는다.

KB라이프 관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고객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KB금융그룹의 강력한 금융 네트워크와 KB라이프의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의 삶에 행복의 가치를 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위기 극복의 해… 자산 건전성 확보 매진"

### 새마을금고 새 얼굴

#### 이용희 종로중앙 이사장

28년 실무담당 금융전문가 역량 발휘  
영세상인 위한 상품·복지사업 준비

"남다른 책임감이 느껴진다. 실무책임자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압박감이 있다. 올해는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추후 지역 맞춤형 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싶다."

이용희 서울 종로구 종로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8년간 새마을금고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종로중앙새마을금고에서 22년째 재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종로중앙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조 1318억 원이다. 전국에서 도손꼽히는 규모다. 선거는 직선제로 치렀는데 후보자 4명이 경쟁했다. 서울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조합원 17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이사장은 1215표(67.57%)를 받아 최종 당선했다.

이 이사장은 올해를 '위기 극복의 해'로 정했다. 그동안 손발을 맞춰왔던 후배 직원들과 함께 자산 건전성 확보



이용희 종로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에 매진하겠단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종로중앙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19%다. 연간 2.6% 포인트(p) 상승했다. 공동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발생한 탓이다. 30년 가까이 실무를 직접 해왔던 만큼 '금융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시기다.

최근 여신과 채권회수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쌓은 대손충당금만 334억 원에 달한다. 각 부서별 팀장들과 소통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다. 지역 환원 사업과 복지 사업도 필요하지만 금고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우랑대출 여신 확보도 신경쓰고 있다. 올해 1500억~1800억 원 규모의 중도

금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중도금대출은 우량채권으로 분류된다. 해당 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율이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우랑차주 확보가 요구되는 시기다.

이 이사장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기대감이 크다. 연체채권을 매각해 건전성을 높이면 그 동안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어서다. 하반기 내수시장 회복 시기와 맞물리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상인의 사업장 정비를 위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중 동대문시장 상인의 비중이 높다. 부부가 운영하는 2인 사업장 비중이 높고 대부분 영세하다. 관련 정책금융 상품을 약속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연체율 상승을 겪으면서 리스크관리 역량도 키웠다. 위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반드시 지역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금고를 안정화하고 위기를 타개하면 어르신을 위한 재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이달 셋째 주 전국 4곳서 2486가구 공급

### 분양 캘린더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등 분양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486가구(일반분양 2486가구)가 공급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충북 청주시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남동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3단지',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 울산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에피트' 등 6곳이 개관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일원에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7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m<sup>2</sup> 단일면적 576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LG화학,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공급되는 아파트로 직주근접이 용이하다.

도보권 내 중심 상권 및 초·중학교(예정)가 위치해 생활이 편리하다. 인근에 2029년 천안·청주공항선 북청주역 개통이 계획돼 있어 향후 교통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은화삼지구 A2·A3블록 일원에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3단지', 충북 청주시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남동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3단지',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 울산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에피트' 등 6곳이 개관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일원에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7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m<sup>2</sup> 단일면적 576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전지원 기자 jjw13@

## 하나금융, ESG 관리·공시 대응시스템 구축

### 각 분야 데이터 표준화 수집·관리

▲인권·다양성·포용성 지표 ▲윤리경영·내부통제 등 중요 지표를 일원화해 모니터링한다. 또한,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공시,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등 다방면에 활용한다.

하나금융은 ESG 공시 정보의 정확성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국내외 전문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해 데이터 신뢰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인다. 그룹사별로 ESG 관련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DL이앤씨, 3900억 규모 장충동 초럭셔리 호텔개발 수주

### 파라다이스그룹 호텔 프로젝트 예술·문화 아우르는 랜드마크 구현

DL이앤씨는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일대에 들어설 '서울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개발사업은 파라다이스그룹이 '위버(uber·초프리미엄) 럭셔리' 호텔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호텔은 1만 3902m<sup>2</sup> 부지

에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189개 객실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공사비는 약 3900억 원이며, 오는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그동안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과 여의도 콘래드호텔을 비롯해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 등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예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속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서울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개발사업은 DL이앤씨의 하이엔드 건축 기술과 고품질 시공 역량을 집약해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호텔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삼성전자, 가정용 AI 로봇 '볼리' 출격… 美 안방시장 공략

美 사전 등록, 올 여름 정식 출시  
구글 제미나이에 자체 AI 결합  
주변 데이터 분석… 맞춤형 조언

삼성전자는 5년간의 개발 끝에 가정용 인공지능(AI) 로봇 '볼리'를 올 여름 미국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 구글의 최신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해 단순한 스마트홈 기기를 넘어 AI 비서형 로봇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볼리의 사전 등록 웹페이지를 열고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 이용자가 이메일을 등록하면 볼리의 출시 일정과 상세 기능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볼리는 공 모양의 본체에 두 개의 바퀴가 달린 형태로, 스피커·프로젝터·카메라·マイ크 등 다양한 센서를 내장한 가정용 AI 로봇이다. 집안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벽이나 바닥, 천장 등에 1080p 화질의 영상과 정보를 투사한다. 또 음성으로 명령을 수행하거나 전화 연결·음악 재생 등 AI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스마트싱



삼성전자는 미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능형 인공지능(AI) 반려로봇 '볼리'의 사전예약을 위한 웹페이지 화면.

/삼성전자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스' 플랫폼과 연동해 가전제품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배터리는 8시간 이상 지속되며,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가는 자율 충전 기능도 탑재했다.

구글의 멀티모달 AI '제미나이'와 삼성 자체 AI가 결합해 기술적 차별화를 꾀했다. 음성 명령, 시각 정보, 주변 환경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용자의 패션 스타일을 인식해 옷차림을 추천하거나, 피곤하다는 말에 수면 환경을 조절하는 등 맞춤형 조언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가정용 로봇 시장은 2025년 101억6000만 달러(약 14조 8000억원)에서 2030년 240억5000만 달러(약 35조 1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9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8.81%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 시장을 장악한 대표적인 제품은 없다. 아마존은 2021년 가정용 로봇 '아스트로'를 999달러(약 140만원)에 출시했지만, 고가에 제한적인 기능으로 인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

지 못했다. 메타와 애플도 각각 휴머노이드 로봇과 가정용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상용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아직 볼리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2%가 가정용 로봇에 관심을 보였으며, 적정 가격대로는 50만~80만 원대를 꼽았다.

LG전자도 AI 가정용 로봇 'LG Q9'을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LG Q9은 집안 내 다양한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하는 이동형 AI 허브로, 음성·음향·이미지 인식 기반 멀티모달 AI를 적용해 집안을 이동하며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 멀티모달은 말소리, 소리, 영상 등 다양한 감각 정보를 동시에 인식해 더 자연스러운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LG Q9은 두 다리 형태의 바퀴로 움직이고, 화면에 눈 모양 이모지를 표시해 감정 표현도 가능하다.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AI 기능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서 진행하는 '비스포크 AI' 옥외광고 모습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알린다

美·英 등 국내외 옥외광고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서 '비스포크 AI' 옥외광고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옥외광고는 비스포크 AI가 일상에 선사하는 혁신과 편리함 등의 가치를 소개하는 총 4편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국내에서도 옥외 광고가 이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과 코엑스, 신분당선 강남역, 여의도 더현대 서울, 스타필드 수원·고양·안성 등 전국 9개 주요 랜드마크에서 '비스포크 AI 콤보' 광고를 운영 중이다.

/이혜민 기자 hyem@

## 석화업계, 글로벌 무대서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뽐내

### 차이나플라스 2025

롯데케미칼 자원순환 솔루션 제시  
SK케미칼 재활용 소재 라인업 선봬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인다. 롯데케미칼, SK케미칼 등 주요 업체들은 지속가능성과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술을 내세우며 시장 입지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 '차이나플라스 2025'가 개최된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전시회에서 '미

래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술력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솔루션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꾸렸다.

'Life Enriching Solutions' 존에서는 롯데케미칼의 다양한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술력을 선보인다. 'Home Appliance' 존에서는 난연, 투명, 항균 등 롯데케미칼의 고기능성 소재가 적용된 가전 하우징 제품을 전시하며 'Packaging' 존에서는 생활 용품 용기부터 산업용 품보드까지 차별화된 포장용 소재를 'Industrial' 존에서는 투명 EVA가 적용된 태양광판 및 고투명 PP가 적용된 의료용품 등 산업용 제품들을 공개한다. 'Mobilit

y' 존에서는 뛰어난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지닌 자동차 내·외장 부품이 전시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전시 참가를 통해 그간 쌓아온 스페셜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케미칼은 이번 전시회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존하는 솔루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 가능한 스페셜티 솔루션을 집중 소개한다.

해중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순환 재활용 소재 분야에서는 ▲사용 후 PET로 분류, 재활용이 가능한 코폴리에스터 '클라로'가 적용된 로레알, 에스티로더의 스킨케어·메이크

업 제품 ▲PET 소재인 '스카이펫 C R'이 적용된 삼다수 물병 및 콜드플레이 애코 LP판 ▲순환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아 CR'이 적용된 CS 그룹의 인테리어 타일 등 사용 전과 사용 후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재활용 소재 라인업을 선보인다.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을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 쓰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태계가 먼 미래에 이뤄야 할 지향점이 아닌 현 시점에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 현대차그룹, WCX 참가

중소협력사와 신규 시장 공략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출 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 협력사를 위해 신규 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 지원 등 상생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4개 중소 부품협력사와 함께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헨팅턴 플레이스에서 개막한 북미 최대 모빌리티 기술 전시회 'WCX'(World Congress Experience) 2025에 공동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관을 구축하고, 협력사별 전시 부스를 마련해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전시에는 동일기계공업, 세인아이앤디, 성원피에프, 광성강관공업, 성립첨단산업 등 24개사가 함께했다.

일부 협력사는 견적 요청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계약 일정을 논의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세련미·주행감·안정성' 삼박자… 무쏘 영광 계승하나

### 자동차 시승기

#### 무쏘EV

실용적인 디자인 요소 인상적  
SUV 승차감… 전비 기대이상

무쏘EV는 픽업이라는 투박한 스타일에 세련미를 장착, 실용성 있는 크기와 가격, 무게중심 변화로 안정적인 주행까지 고객이 원하는 삼박자를 모두 갖췄다. KG모빌리티(KGM)가 새롭게 선보인 '무쏘EV'를 시승 후 느낀 점이다.

무쏘EV 시승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KG모빌리티 앤스파리언스센터



KGM 무쏘EV 외관 모습.

강남에서 경기도 양평군 일대를 오가는 왕복 약 9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무쏘EV의 첫 인상은 웅장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느낌을 줬다. 픽업 고유의 간이함과 전기차의 스마트한 이미지를 접목한 외관에 실

용적인 디자인 요소를 균형 있게 표현했다.

무쏘EV는 픽업트럭이지만 중형 SUV 수준의 승차감과 주행성능을 보여 준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는 전기차 특유의 조용함과 정숙함이, 엑셀러레이터를밟았을 때는 매끄럽고

유연하게 나아갔다. 과속방지턱에서는 꿀렁거림을 예상했지만 부드럽게 넘어갔고, 고속 주행이나 코너링에서도 쏠림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무쏘EV 전비는 1㎾h(킬로와트시)당 5.8km로, 공인 복합전비(4.2㎾h/kWh)보다 높았다.

내구성과 안정성, 스타일까지 갖춘 무쏘EV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전동화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기아, AI 상담사 도입

기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고객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아는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상담사를 도입한 AI 기반 고객센터를 구축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통합하고 고객경험 혁신과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아 고객센터에 신규 도입된 AI 상담사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AI 상담이 가능해 단순 문의에 대해 자동으로 응대한다.

/양성운 기자

# “칩에 냉각수 흘려 직접 식힌다”

## LG, AI공조 기술로 시장 정조준

美, ‘데이터센터 월드’ 첫 참가

CDU부터 터보칠리까지 총출동  
AI 서버 전용 정밀 솔루션 제시  
비컨으로 에너지 효율 등 극대화

LG전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빠르게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맞춰 공조(냉·난방) 기술력을 앞세운 냉각솔루션 사업 확대에 나선다.

LG전자는 오는 14일(현지 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 월드 2025’(DCW 2025)에 처음 참가해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냉각 기술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기냉각과 액체냉각을 아우르는 맞춤형 솔루션 라인업을 공개하고, 데이터센터 구조에 최적화된 복합 냉각 방식도 제안한다.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액체냉각 솔루션’으로, 서버 내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핵심 반도체 칩에 냉각판을 부착하고, 냉각수를 흘려보내 열을 직접 식히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액체냉각 방식에 최적화된 장비인 ‘냉각수 분배 장치’(CDU)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이 장비에는 고장 난 센서를 자동으로 바로잡아주는 가상 센서 기술, 필요한 만큼만 냉각수를 흘리는 인버터 펌프 기술이 적용됐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완료하고 연내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LG전자가 14일(현지 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 월드 2025’에 처음 참가한다. 위 사진은 LG전자 모델들이 HVAC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한 냉각수 분배 장치(CDU)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공기냉각 방식의 대표 제품도 선보인다. ‘무급유 인버터 터보칠리’는 대형 데이터센터의 실내 온도를 낮추는 장비로, AI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운전을 지원한다. 자기 부상 방식의 회전 기술을 적용해 마찰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공기 흐름을 정밀 제어하는 ‘팬 월 유닛(FWU)’과의 연동으로 냉방 성능도 끌어올렸다.

LG전자는 공기냉각과 액체냉각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도 함께 제안한다. 전력 소비가 많고 빌열이 심한 AI 서버에 맞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냉각 방식을 조합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칠리공장 내에 AI 데이터센터 전용 테스트베드를 새로 구축했다. 서버 랙과 냉각 장비를 설치해 실제 운영

환경을 구현하고 있으며, 장비를 액체에 담가 냉각하는 ‘액침냉각’ 기술도 함께 연구 중이다.

AI 기반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비컨’도 함께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건물 내 온도와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분석해 에너지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솔루션으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 효율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적합하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ES(Eco Solution) 사업부를 신설하고, 냉각을 포함한 공조 기술 기반의 B2B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LG전자는 칠리부터 CDU까지 다양한 냉각 솔루션을 갖춘 준비된 기업”이라며 “차별화된 공조 기술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B2B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중소기업계 “지속가능 성장위해 3대 혁신 필요”

중기중앙회 등 13개 단체 참여  
차기 정부에 ‘혁신처방전 100개’ 제출

범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3대 분야, 100대 정책과제’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부’ 신설,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제21대 대통령후보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사진)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제언에는 관련 단체 외에도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SME(중소기업) 아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의 성장엔진 곳곳이 ‘한국병’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순이익이 감소해 한계기업이 늘고, 노인부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쉬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소비보다 생계가 우선인 현실이 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2023년 1127조원에서 2027년엔 141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 역할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대 수출 상품’의 경우 85년도에는 65년도와 비교해 반도체, 석유제품, 영상 기기 등 7개 품목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85년 대비 2005년에는 5개(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2022년(2005년 대비)에는 디스플레이만 유일하게 포함되는 등 역동성도 시라지고 있다.

또 미국(시가총액 기준)은 애플(1976년), 마이크로소프트(1975년), 엔비디아(1993년), 아마존(1994년), 알파벳(1998년) 등 창업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집단 자산기준)은 삼성(1938년), SK(1953년), 현대차(1967년), LG(1947년), 포스코(1968년) 등 전통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부모 소득이 높으면 상위권대 진학률이 덩달아 올라가

고, 가구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 역시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부문에선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팹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 배심원제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부흥’에선 ▲중소기업 업종별 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마련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제생태계 순환’ 부문에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의요정권 도입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 허용 ▲유사·중복 투자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승호 기자 bada@

## 귀뚜라미, 2030년 3조 매출 목표 ‘청신호’

연결기준 1.25조 기록 5년째 매년 성장

귀뚜라미그룹이 5년째 매년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2030년 3조원 매출’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 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극심한 내수부진에도 달성한 실적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2507억원, 영업이익은 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 23.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9352억(2020년)→9733억(2021년)→1조2042억(2022년)→1조2372억원(2023년)을 각각 기록하며 매년 성장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난방, 냉방, 에너지 계열사인 ▲귀뚜라미 ▲귀뚜라미볍양방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귀뚜라미에너지 등 21개 종속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아이템 다각화를 통해 사계절 불이 꺼지지 않는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난방 사업 분야는 거꾸로 N EW 콘덴싱 P10, 거꾸로 ECO 콘덴싱 L20 등 신규 출시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와 카본매트, 카본보드 등 난방 아이템의 판매 호조로 국내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 해외 영업 강화와 현지 특화 제품 생산·판매를 통해 해외 매출도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

냉방 사업 분야는 냉각탑 국내 1위, 드라이룸 시스템 국내 1위, 원자력 발전소와 특수선 냉동공조기 국내 1위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룹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수백억 상당의 발전소용 냉각탑 프로젝트 ▲국내 40㎿와트(MW)급 데이터센터 쿨링시스템(Cooling System) ▲해외 원자력발전소 냉동공조 사업 등 핵심 산업에서 신규 수주를 이어가며 매출 성장을 이뤘다.

/김승호 기자

## 분야별 창업 해외진출 전담기관 가동

중기부, 액셀러레이팅 기관 8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한 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한·아프리카재단(외교부)은 기관이 보유한 아프리카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후테크·에이징테크 창업기업의 남아공·이집트 진출을 지원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환경부)는 유럽시장 진출 지원 노하우를 활용해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 진출을 돋는다. 산업 분야에 대한 환경부의 전문성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간 시너지가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 프리미엄 체험 ‘시몬스 맨션’ 익산 상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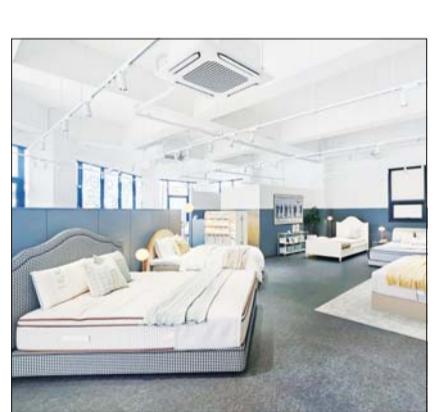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등 진열

시몬스가 전북 익산시 신동에 ‘시몬스 맨션 익산점’을 열었다.

13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시몬스 맨션 익산점은 삼성스토어 익산점, LG 베스트샵 원대점, 롯데마트 익산점 등 대형 가전 및 마트가 자리한 핵심 상권에 자리해 쇼핑 편의성이 높다. 또한 주변에 광신프로그레스더센트로, 익산자이그랜드파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향후에도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가족 단위 부터 예비부부까지 다양한 고객층의 유입이 기대된다.

시몬스 맨션은 시몬스 본사에서 인테리어, 진열제품, 홍보 등 관련 제반 비용 100%를 지원하는 위탁 판매점이다.

새 매장은 195㎡ 규모로 시몬스 침대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Beautyrest BLACK)’과 침대업계 메가히



시몬스 맨션 익산점 내부 전경.

트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Beautyrest)’의 인기모델이 진열돼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 및 자녀를 위한 슈퍼싱글(SS) 사이즈부터 넉넉한 수면 공간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킹오브킹(KK)’, ‘그레이트킹(GK)’ 사이즈까지 여러 사이즈가 마련돼 주거 환경 및 개인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침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연계통합 미들웨어·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 METABUILD



# 활용성 높아진 지도 앱… IT업계, AI 등 기술 고도화 속도

길찾기 넘어 슈퍼앱 생태계 조성

네이버 AI 기반 이용편의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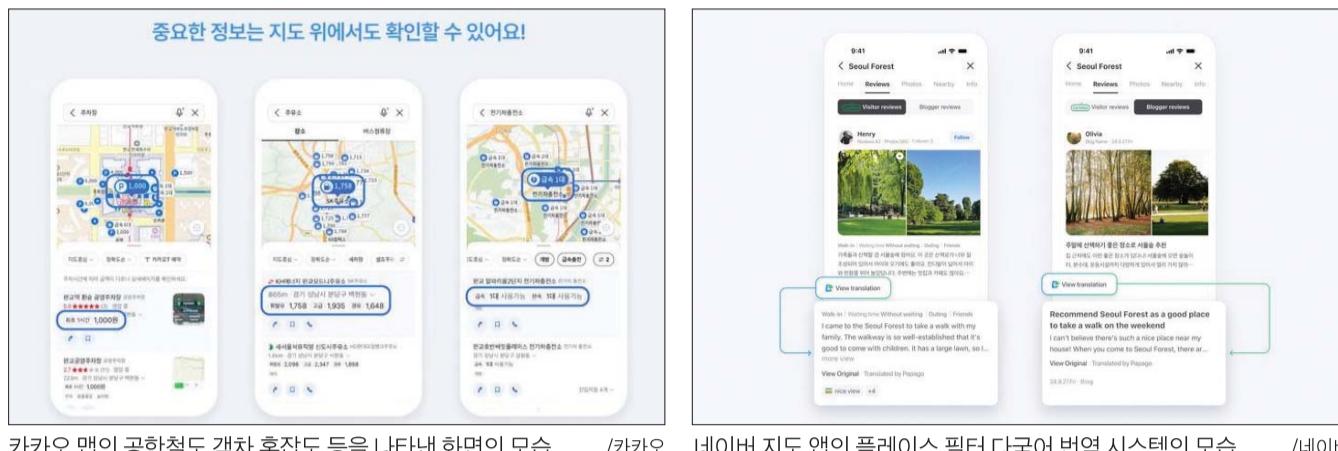
카카오 하이퍼로컬 전략 본격화

국내 대표 지도 앱인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이 이용자 확대를 위한 기술 고도화와 기능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직관적 인터페이스(UI) 개편, 목적별 정보 접근성 개선이 두 앱 모두의 공통 전략으로 떠올랐다.

13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도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네이버 지도 앱 MAU는 2650만 1574명이다. 카카오맵의 경우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1171만 명을 기록해 전월 대비 10.8% 증가했다.

두 앱 모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생활밀착형 기능을 강화하며 서비스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 지도는 LLM 기반 AI 요약 기술과 외국인 맞춤형 접근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



카카오 맵의 공항철도 객차 훈잡도 등을 나타낸 화면의 모습. /카카오

네이버 지도 앱의 플레이스 필터 다국어 번역 시스템의 모습. /네이버

며, 카카오맵은 하이퍼로컬 서비스와 카카오톡 연계를 통한 연결성 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 지도는 올해 MAU 3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AI 기술 도입과 외국인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네이버는 상반기 중 식당, 숙박, 관광지 등 장소 리뷰를 자동으로 요약해 제공하는 플레이스 특화 AI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기능은 도메인별 키워드(맛, 분위기, 시설 등)를 추출하고,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핵심 정보를 자동 요약해 직관적인 장소 선택을 돋는다.

운전자 편의를 위한 기능도 개선됐다. 목적지 주변 주차장 검색, 주차 요금 확인, 예약·결제,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춘 영업 여부 안내 등이 대표적이다. 네이버맵은 내비게이션 점유율이 낮지만, 다양한 차량 이용 기능 확장을 통해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기능도 늘었다. 지난 해 말부터는 한국어 리뷰와 필터에 대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이 적용됐으며, 네이버페이 상거래 이용 시 필수였던 실명 인증도 별도 인증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맵은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

하는 ‘전문가 프로필’ 기능을 도입해 동네 기반 생활 서비스로서의 하이퍼로컬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용자는 카카오맵에서 ‘전문가’ 키워드 검색 후 자격 인증이 된 전문가 정보를 확인하고, 카카오톡 ‘예약하기’ 기능과 연동해 상담·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다.

실시간 교통 편의 기능도 강화됐다. 지난 1월부터 공항철도 노선에 객차별 훈잡도를 시각화해 제공하며, 공항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검색 결과를 지도뷰·목록뷰·듀얼뷰로 나눠볼 수 있도록 UI를 개편하고, 숙박 필터 기능, 전기차 충전

소·주유소·주차장 정보 등 생활 밀착형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기업의 지도 앱 전쟁 배경에는 지도 앱의 ‘하이퍼로컬’을 슈퍼앱 생태계로 이어가겠다는 청사진이 깔려 있다. 지도에서 출발해 예약, 상담, 결제, 리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각사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로 연결되며, 이탈률을 낮추는 핵심 죽이 된다.

또 지도 앱은 고정밀 위치 정보와 이동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추천, 상권 분석, 광고 타겟팅 등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허브’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네이버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지도 기반 상거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AI 기반 지역 추천 서비스 ‘AI 메이트 로컬’ 연동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도 앱은 더 이상 단순한 길찾기 수단이 아니라, 생활 소비의 시작점이자 모빌리티·상거래·AI를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경쟁은 플랫폼 주도권을 둘러싼 전초전 성격이 같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IT기업 가치평가 도마위… “기대감만 부풀려” LG U+, 재난지역 반려동물 구호 확대

### X-xAI 합병

마스크 “엄청난 잠재력 발휘할 것”  
IT업계 “시장에서 반복되던 레토릭”

일론 머스크가 본인 소유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의 합병을 통해 X를 재정 위기에서 구해냈지만, 기업의 시장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머스크는 이번 합병을 두고 “xAI의 첨단 AI 기술과 X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결합해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적 모멘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xAI와 X의 합병은 총 1130억달러(약 161조 1719억원) 규모로, xAI의 기업 가치는 800억달러, X는 330억달러(총 450억달러에서 부채 120억달러 제외)로 평가됐다.

시장에서는 설립 2년 차에 불과한 xAI가 800억달러라는 높은 가치를 인정 받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11월 마지막 투자 라운드 당시 500억달리였던 xAI의 기업 가치가 60% 급증했고, X의 평가액은 머스크가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 금액(부채 120억달러 포함 총 440억달러)에 가까워졌다.

LA타임즈는 “이 거래는 머스크가 자기 회사를 또 다른 자기 회사로 인수하는 구조로, 양사 모두 모건스탠리가 대표 자문사 역할을 맡았다”며 “이런 독특한 구조 덕분에 머스크는 투자자들이 반발하지 않는 한 사실상 임의로 가치 평가를 조정할 수 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현실적인 숫자는 기대에 기반한 평가라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의 기업에 대한 평가에는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 기대치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

이다.

IT 업계는 머스크의 이 발언을 ‘시장에서 반복되던 레토릭’으로 평가한다. 실제 투자나 기술 성과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LA타임즈는 “머스크의 논리는 다소 허술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시너지 효과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xAI는 이미 1년 넘게 X 데이터를 활용해 그록을 훈련시켜왔고, 머스크는 X를 통해 그록을 홍보했으며, X의 유료 구독 상품으로 그록 고급 버전을 판매해왔다.

LA타임즈는 “머스크가 양사를 모두 운영해왔기에 이런 이점들이 위태로운 일도 없었고 X가 갑자기 경쟁 AI 기업과 손잡을 가능성도 없었다”며 이번 합병의 필요성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현정 기자 hjk1@

### 특화 구호소 설치 등 돌봄활동

LG유플러스와 동물자유연대가 재난 지역 반려동물 구호활동 전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활동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산불이 발생했던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영덕군·안동시 등에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36마리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의성체육관 인근에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특화 구호소를 설치해 돌봄 활동을 실시했다.

재난 상황에서 동물도 보호가 필요하지만, 현재 반려동물은 이재민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출입할 수 없다. 이에 LG유플러스 임직원,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외에 교육협동조합 세움 활동



LG유플러스는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영남 재난 지역에서 반려동물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은 의성체육관 인근에 설치된 국내 최초 반려동물 특화 구호소의 모습. /LG유플러스

동아, 연암대학교 반려동물학과 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의성체육관 야외 공간에 약 20평 규모로 반려동물 특화 구호소를 구축하고, 동물들을 보호했다.

LG유플러스와 동물자유연대는 향후에도 재난 시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 구호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 훈련” 신청하세요

### 이통3社, 독립운동가 삶 전한다

광복 80주년 기념 V컬러링 기부 캠페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경덕 선여대 교수와 함께 ‘V컬러링 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V컬러링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하고, 관련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신3사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독립운동가를 주제

로 한 영상을 ‘V컬러링’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첫 번째 영상은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춰 공개했고, 김규식 선생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해당 영상을 V컬러링으로 설정한 고객은 월 이용료 3300원의 일부를 기부하게 되며, 기부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였던 ‘경교장’의 보존 및 전시 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캠페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5명을 선정, 오는 8월 서경덕 교



수와 함께하는 ‘독립운동 역사 탐방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 과기부-KISA 민간 참여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가 14일부터 내달 2일 까지 민간기업의 ‘2025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훈련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민간부문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디도스(DDoS) 공격, 해킹메일, 기업 홈페이지 모의침투, 취약점 대응 등 실전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훈련 신청은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비영리단체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훈련부터는 보안 장비 유무와 무관하게 외부 공개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도 취약점 대응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훈련 종료 후에는 결과 분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강평회’를 개최해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한 대응 노하우와 최신 사이버 공격 트렌드를 전파할 예정이다.

정기 훈련 외에도 자체 일정에 따라 훈련이 가능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을 통해 상시 훈련 참여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 ‘코스피 급락=바겐세일’ 개미군단, 삼성·SK 쓸어 담았다

전 세계 ‘트럼프 세션’ 공포에도 개인, 이달 코스피 5.1조 순매수 삼성전자·SK하이닉스 3.2조 매수 현대차·기아도 7000억 사들여 삼성·SK 저점매수 전략은 유효 車 업종 목표가 하향, 부정전망

직장인 A(36)씨는 지난 9일 삼성전자 주식 400주를 주당 5만4000원에 샀다. 2200만원에 가까운 돈이다. 그는 “6만 원 선이 깨지자서 둘러 매수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전부터 세금을 뗀 월급 실수령액 450만원과 량의 절반을 삼성전자에 투자해 왔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50~200주 가량 사 모으는 식이다. 이렇게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1600여 주에 달한다.

전 세계에 ‘트럼프 세션(트럼프와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 공포가 짙어졌지만, 개미 군단의 진격을 막을 순없었다. 4월 들어 코스피가 88포인트 넘게 급락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조정을 오히려 ‘바겐세일’로 여긴 모습이었다. ‘K-반도체’와 ‘K-자동차’



ChatGPT로 생성한 ‘국내 반도체·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는 개미(개인 투자자)’ 이미지.

들이 대상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시가 급락했던 이달 1~11일 9거래일 동안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조 1041억원 가량 주식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8조 4958억원어치 순매도한 물량을 받아낸 결과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쓸어 담았다. 개인이 이 기간 순매수 한 금액은 3조 1981억원에 이른다. 개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인 전체 금액의 63% 가까운 수치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4조 3345억원 판 것과 대조적

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각각 5192억 원, 2091억원 사들이며 개인 순매수 3.4 위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각각 5545억원, 2125억원 팔았다.

개인들이 ‘전차’(전기, 자동차)에 ‘몰빵’ 투자한 것은 ‘주가는 폭락 후 반등 한다’는 학습 효과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전차주 투자에 집중하는

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꾸준히 돈을 베는 회사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삼전이 안 오르면 대한민국 망한다” “6만원 밑이면 무조건 줍줍(줍고 또 줍는다) 기회다” 등의 글이 넘쳐 난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 관세부과 우려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7배까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디램(DRAM) 경쟁력이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점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짚었다.

SK하이닉스 역시 비중확대 시점으로 평가됐다.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7000억 원, 2분기는 8조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키움증권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과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인한 컨슈머 디바이스의 수요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이는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이기 때문에 단기 호재가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증권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낸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달 들어 현대차에 대한 종목 보고서를 낸 증권사 6곳 중 5곳이 목표가를 내렸으며, 나머지 1곳도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동일 기간 기아도 의견을 제시한 12개사 중 5개사가 목표가를 낮췄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에 대해 “팰리세이드, 투싼, 아이오닉 등은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아 관련한 타격을 일부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완성차에만 국한해서 관세 영향을 짐작해봐도 경쟁사들이 당장 가격 인상 자체하면서 관세 부담을 OEM(제조업체)들이 젊어지고 가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현대차의 2025년 매출액은 181조 원, 영업이익은 13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2.1%, 11.9% 하향 조정된 수치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中 펀드 수익률 두 자릿수 하락 ‘빨간불’

미·중 관세전쟁 후폭풍  
국내 설정 185개 中펀드 수익률  
평균 -10.86%, 타국대비 폭 커

중국 증시가 미·중 관세전쟁 이슈로 휘청이자 중국펀드 수익률도 고꾸라지고 있다. 미국이 총 14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곧장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기준 84%에서 125%로 올려 맞대응하면서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고개를 들고 신흥국 자금 유출까지 가속화 됐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초보다 더 떨어졌고 지난 3월 2400선대로 올라섰던 홍콩 증시는 지난해 말 수준인 2000선 초반으로 밀려났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국내 설정된 185개 중국 주식형 펀드의 최근 일주일 간 평균 수익률은 -10.8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북미(-3.89%), 브라질(-4.22%), 러시아(-4.71%), 인도(-5.68%) 펀드와 비교해도 손실 폭이 가장 컸다. 한 달 수익률 역시 -15.07%로,

브라질(2.26%), 인도(0.52%), 북미(-5.55%), 유럽(-13.72%), 일본(-14.04%) 등 주요국 펀드에 비해 가장 저조했다.

관세전쟁 이슈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파장을 집어삼킨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중국증시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관세전쟁 이슈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도.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무역전쟁을 고집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철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및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중 양국이 강 대 강 대치로부터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호재도

있다. 중국은 ‘여론전’과 함께 위안화 평가 절하 신호를 보내며 국부펀드를 통한 증시 방어 등의 ‘장기전’ 대책도 시작했다. 중앙후이진 등 중국 국부펀드들은 7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 보유량을 늘린다는 발표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대표 상장사들은 미국의 ‘관세폭탄’ 충격에 최근 급락했던 자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200억위안(약 3조 9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중타이증권의 쉬츠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자사주 매입이 “패닉 확산을 막고 시장 혼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애버딘 인베스트먼츠의 레이 샤르마-옹은 중국 당국이 내놓을 부양책에 대해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중앙 은행의) 채권 매입 재개 등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시장 안정화 기금 증액과 출산·아동 보조금 같은 추가 소비 진작책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미래 vs 한투 ‘한국판 골드만삭스’ 경쟁

‘원금 지급형’ IMA 내년 도입  
금융당국, 3분기 인가접수, 연내 지정  
사실상 올해가 ‘1차 진입 골든타임’

‘한국판 골드만삭스’ 1호 타이틀을 놓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본격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가 고객의 계좌를 직접 운용하며 수익을 올리고, 원금도 보장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이르면 내년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증권업 기업금융제고 방안’을 통해 종투사 제도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3분기 중 인가 신청을 받아 연내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자기자본 요건은 발행어음 4조 원, IMA 8조 원으로 나뉘며, 내년부터는 제재 이력과 사업계획 검토 등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어서, 업계는 올해를 사실상 ‘1차 진입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현재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IMA 인가 요건(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이다. 양사는 각각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 발행어음 시장에서의 실적을 기반으로 IMA 업무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IMA 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하는 구조가 명문화되면서, 대형사들이 기존 부동산금융 중심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종합투자계좌(IMA) 인기를 거냥한 상품 구상과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IMA 도입을 위



Chat GPT로 생성한 ‘초대형 증권사’를 향해 달려가는 증권사들의 경쟁.

한 전략적 방향을 내부적으로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계열사 거래 관련 논란과 입찰 관련 사안이 미래에셋증권의 향후 인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IMA 사업자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고 투자자가 맡긴 예탁금을 기업에 대출하거나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손실 우려 없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증권업계는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IMA 제도는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통해 초대형 IB 진입을 노린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5조 4945억 원으로 4조 원 요건은 충족하지만, IMA 요건인 8조 원에는 미달한 상태다. 회사 측은 “그동안 내부 회의체를 통해 진출을 검토해왔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만큼 도전하기로 했다”며 “초대형 IB 준비는 내부통제 강화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최우선 과제는 내부통제”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예탁원 ‘K-Camp’ 비수도권 창업 성과

5년간 262개사 수료, 신규고용 733명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생태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K-Camp’이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예탁원에 따르면 K-Camp는 지난 2019년 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혁신창업기업 지

원 프로그램으로, 현재 대전, 광주, 대구, 강원,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부산은 지역 내 기타 혁신기업지원 활동 중복으로 2023년 하반기까지 운영됐다. 약 5년간 총 262개사가 K-Camp를 수료했으며, 이 기간 동안 누적 733명의 신규 고용과 1025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특히 K-Camp는 매년 일관된 성과를 기록하며 비수도권 특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만 해도 93억 1000만 원의 투자 유치와 134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더해 매출이 144억 2200만 원 증가했으며, 연구개발(R&D) 협력과 자본 조달 업무 협약, 타 창업지원 사업 선정 등을 포함한 135건의 사업 제휴도 이뤄지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원관희 기자

#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5명이 'SKY'… '학벌 카르텔' 여전

종로학원, 22개 로스쿨 1850명 분석  
서울·고려·연세대 3곳서만 1024명  
지방대 출신 4.8% 전북대 20명 최다  
서울대 자교 합격자 비율 67% 최고

전국 로스쿨 합격자 과반수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합격자 84%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으로, 특정 대학에 사법시험 합격자가 몰리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학벌 편중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중 합격자 출신 대학을 공개하지 않은 경북대·동아대·영남대 등 3개 대학을 제외한 22곳의 합격자 1850명을 분석한 결과 83.9%가 서울권 소재 대학 출신이었다.

이 중 서울대 출신 합격자는 413명으로 전체 22.3%를 차지했고, 고려대 319명(17.2%), 연세대 292명(15.8%) 등 'SKY' 출신이 전체 로스쿨 합격자의 55.4%(1024명)를 차지했다.



서울대 로스쿨 모의 법정.

는 전북대가 20명(1.1%)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 18명(1.0%) 전남대 17명(0.9%) 충남대 6명(0.3%) 제주대 4명(0.2%) 경북대 3명(0.2%) 조선대 3명(0.2%) 고려대(세종), 강원대, 국립경상대, 원광대 등 각 2명(0.1%) 순이었다.

전국 22개 로스쿨의 평균 자교 출신 비율은 20.8%였다. 로스쿨 자교 출신 합격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대로,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중 서울학부 졸업자가 66.7%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44.4%) 성균관대(34.8%) 경희대(33.3%) 서울시립대(30.9%) 고려대(29.8%) 중앙대(25.9%) 한국외대(16.7%) 이화여대(16%) 서강대(13.6%) 순이었다. 규정상 로스쿨은 같은 대학 학부(자교) 출신을 3분의 2 이상 선발하지 못하는데, 서울대는 그 비율의 최대치에 근접했다.

반면, 충북대 로스쿨은 합격 인원 74명 중 자교 합격 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 원광대는 65명 중 1명이, 아주대는 55명 중 1명이, 충남대는 110명 중 3명 만이 자교 출신 합격자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

권 소재 12개 로스쿨 합격자가 평균 31.9%가 자교 출신이었던 반면, 경인권 2개 로스쿨은 2.7%, 지방권 8개 로스쿨은 6.5%만이 자교 출신으로 집계됐다"라며 "로스쿨 합격 인원이 많은 대학이나 자교 출신 합격 비율이 높은 대학 모두 서울권 상위권 대학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스쿨은 문과·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문직 분야로, 로스쿨 합격 인원이나 자교 출신 합격비율 등이 대학 선택에서 중요한 선택 변수로 작용하면서 대학의 지역 간 편차가 심화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임 대표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학에 상관없이 의대 등 메디컬 부분 쏠림현상이 있다면, 문과 상위권 학생들은 학과 보다는 대학 브랜드 등이 학교 선택에 중대 변수로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로스쿨 선발 과정에서 서류, 면접 점수 비중이 높은 것 또한 로스쿨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집중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나머지 합격자 중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성균관대 127명(6.9%) 경찰대 81명(4.4%) 이화여대 79명(4.3%) 한양대 67명(3.6%) 중앙대 51명(2.8%) 서강대 47명(2.5%) 경희대 41명(2.2%) 등 로스쿨 학생 출신 대학 상위 10곳이 전체 학생의 82%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곳 중 경찰대를 제외한 9곳이 모두 서울권 소재 대학이었다.

울권 소재 대학이었다.

이밖에 서울시립대 27명(1.5%) 한국외대 24명(1.3%) 건국대 12명, 동국대 8명, 인하대 5명, 숭실대 4명, 성신여대 4명, 덕성여대 3명 등이 학생을 배출했다.

지방권 소재 대학 출신 학생자는 4.8%(88명)에 그쳤다. 지방권 대학에서

## '학부모마음상담' 확대… 대면상담 신설

서울시교육청, DB·사례집도 마련  
내달부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부모의 다양한 상담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학부모마음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확대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서울학부모마음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고충 상담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올해 주제별 맞춤형 학부모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상담소 ▲자녀 생애 주기와 학교 학사 운영 고려한 상담 시스템 구축 ▲학부모지원센터의 축적 상담 사례 체계화 및 상담 데이터베이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스 제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학부모 마음 상담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해 전문상담사를 확충하고 내밀한 고충 해소를 위한 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단절·중단없는 상담 체계를 구

축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상담 사례를 모은 카드뉴스도 제작하고 상담사 이야기 등을 모아 e-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서울학부모마음상담'은 14일부터 시작하며, 5월부터는 매월 1~3일 서울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https://parents.se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소는 5월부터 대면상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의 다양한 상담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앞으로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및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교직원도 사이버대 학위 취득 가능

경기도교육청-원광디지털대  
사이버대 5곳과 위탁교육 협약 체결  
직무역량 강화·정년 후 대비까지 지원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운철)가 경기도교육청과 11일 경기도교육청 산부청사 컨퍼런스홀에서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광디지털대를 포함한 주요 사이버대학 5개교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임직원의 자기 계발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청 산하 기관

재직자는 온라인 기반 교육으로 정규 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입학 시 산업체 위탁교육 장학 혜택도 적용받는다.

이에 원광디지털대는 학사과정 입학 시 수업료의 50%, 석·박사과정 입학 시 3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온라인 기반의 교육과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직장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 형태는 정년 후 인생 2막을 준비하거나, 현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교직원,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 실무 종사자들의 꾸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

체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증빙이 가능할 경우, 해당 기관과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김운철 총장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약 20만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원광디지털대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직원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그 의미 있는 협력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학년도 원광디지털대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현진 기자

## 인하대 저서, 세종도서 추천 목록에 올라

세계 한국학 동향·발전전략 담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국제관계연구소 산하 K학술학산연구센터가 발간한 연구저서 '글로벌 한국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정체성의 정치와 공공외교의 한국학'이 2024년 세종도서에서 학술 부문 추천 도서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출판 진흥 사업이다. 매년 학술·문화·교양 등 각 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해 전국 공공 및 대학 도서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0개 분야에서 363종의 도서가 최종 선정됐다.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산하 K학술학산연구센터는 한류를 계기로 높아진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관심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한국 이해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21년 7월부터 사회과학 기반의 'K학술학산연구소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저서는 이 같은 연구 활동을 집대성한 것으로 글로벌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성과물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저서의 1부는 한국학의 발전 흐름을 개괄하고, 글로벌 한국학으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일본, 유럽, 영미권 등에서의 한국학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3부에서는 아시아·대양주·유라시아 등 신흥지역에 서의 한국학 전개 양상과 고려인 대상 한국어 교육 사례를 통해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제시했다. 부록에는 사회과학 분야 한국학의 전 세계적 현황을 통계로 정리해 학술적 활용도를 높였다.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국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 저서는 한국학의 발전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 연구 동향을 조망함으로써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걷기 좋은 봄' 경기옛길 벚꽃명소 13곳 선정

경기도-경기문화재단

초행자도 앱으로 손쉽게 탐방 가능

경기도와 경기옛길센터는 봄을 맞아 도내 대표 역사문화 탐방로인 '경기옛길' 구간 가운데 벚꽃명소 13곳을 선정했다. 해당 명소는 따뜻한 봄날 도민들의 일상에 여유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13곳은 경기옛길 전체 구간 중 벚꽃이 특히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명소로 삼남길 3곳, 의주길 1곳, 영남길

1곳, 평해길 2곳, 경흥길 2곳, 강화길 1곳, 봉화길 2곳이 포함됐다. 이들 명소가 위치한 경기옛길 구간은 벚꽃 구경은 물론, 날씨가 따듯해진 봄철 걷기에 적합하다.

처음 걷는 도민이라도 '경기옛길'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구간을 찾을 수 있다. 앱을 통해 옛길지도와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주요 지점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음성해설도 들을 수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



MONTES®  
PRIDE IN WINEMAKING



칠레 최정상의 아이콘 와인

몬테스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경북도 “완벽한 의료시스템으로 ‘APEC 정상회의’ 뒷받침”

지정 협력병원, 23곳으로 확대  
행사장서 현장진료소 3곳 운영  
구급차 50대·응급헬기 5대 투입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원단은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협력병원을 확대하고 중증 응급질환별 전담의료팀과 현장진료소 3곳을 운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단은 먼저 APEC 정상회의 지정 협력병원을 이달 중 기존 13곳에서 23곳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협력병원은 접근성과 시설·의료 수준, 환자 중증도와 의료 수요에 따라 3단계로 운영된다.

1차 협력병원은 동국대 경주병원을 포함한 경주·경북권 병원 13곳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경북 경주백운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월정교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준응급 및 비응급 환자를 치료한다.

2차 협력병원은 대구·부산 등 광역 거점병원 7곳, 3차 협력병원은 서울권 종합병원 3곳으로 이들 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대응, 회원국 정상 치료와 응급 이송 체계 등이 연계된다. 여기에 중증 응급질환별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담 의료팀이 참여하게 된다.

정상회의장과 경주엑스포대공원,

라한호텔 등 주요 행사장에는 경증환자 진료·처치, 협력병원 이송 지원 등을 담당하는 현장진료소 3곳을 운영한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내에는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협업해 현장 이동형 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선 국가별 숙소, 회의장, 만찬장 인근에 구급차 50

대와 응급헬기 5대 등을 투입한다. 지원단은 응급의료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APEC 의료봉사자도 모집하기로 했다.

또 동국대 경주병원에는 85억 원을 들여 응급실 병상을 20개에서 28개로 늘리고, 응급실 면적도 2~3배 확장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스마트미디어센터에는 AI 기반 실시간 건강모니터링, 양한 병원 격진료 프로그램 등의 ‘K-의료 스마트헬스케어관’을 운영해 K-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완벽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국제행사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남은 기간 세부 과제를 꼼꼼히 준비해 의료 공백 없는 완벽한 의료 시스템으로 APEC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 지역 이모저모

### 창원시

#### 산불 진화대원에 표창패 전달

창원시는 산청군 산불 발생 당시 위험한 여건에서도 산불 진화업무를 수행한 창원시 직원과 산불 진화대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표창 대상자들은 의창구청·성산구청 산불 담당 공무원 2명과 산불 진화대원 19명으로, 지난달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 투입돼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 업무를 수행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불 진화 현장에서 강한 돌풍으로 진화대원들이 불길에 고립되고 차량 2대가 전소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투철한 사명감으로 산불 합동 진화에 최선을 다해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의령군

#### 지방 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의령군은 경남도가 진행한 ‘2025년 지방 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세정 종합평가가 시행된 30년 이래로 수상이 전무했던 의령군은 올해 역대 처음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24년도 지방세정 업무 전반을 평가했다. 평가 지표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운영, 체납액 정리, 세정 일반 등을 포함한 7개 분야 2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전라남도는 11일 무안 초당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열렸다.

/전남도

### 전남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 광복회 전남도지부 주관 개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약사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명장환 부지사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독립의 정당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항일무장투쟁을 활발하게 펼쳐 광복 때까지 독립운동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의향전남’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선양과 보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 포항시, 홍보대사로 ‘가수 이지훈’ 위촉

가족 중심 이미지, 도시비전과 일치  
포항시는 지난 11일 배우 겸 가수 이지훈을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지훈은 대체 29년 차 가수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최근에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3’과 뮤지컬 ‘노트르담드파리’, 유튜브 채널 ‘지아라이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철마도시농업공원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에는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지

3명의 조카가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포항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2021년 부인 아야네와 결혼한 이지훈은 딸 루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으며, 부모님을 포함한 3대 19명의 대가족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가족 중심의 따뜻한 삶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가족 중심의 삶이 포항시가 지향하는 도시 비전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해 이지훈을 오는 2027년 4월까지 2년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 한국해양진흥공사

#### 컨테이너선사 대응전략 콘퍼런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적 컨테이너선사 CEO를 대상으로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컨테이너선사 대응 전략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3일 벌크·탱커선사 대상 콘퍼런스에 이어 개최됐으며 전 세계적 무역 위기 확산과 해상 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해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 기장군, ‘철마도시농업공원’ 운영 본격화

### 부산 최초 도시농업테마 공원

기장군은 부산 최초 도시농업테마 공원인 철마도시농업공원이 11일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도시농업 관계자, 지역 주민,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이 함께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 기념식수식재 등 기념식 행사가 진행됐다.

철마도시농업공원은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에 총 2만 6869㎡ 규모로 조성됐다.

공원에는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지

원하는 도시농업센터를 비롯해 ▲주민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민행복텃밭 ▲어린이를 위한 교육 공간인 어린이학습텃밭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교육·힐링 공간으로 창출됐다.

또 정기적인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한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도시농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철마도시농업공원을 다양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 치킨 값 또 들썩?... 가성비·맛 잡은 마트·냉동 제품 인기

6개월새 닭고기 시세 2000원↑  
배달수수료 부담 '엎친 데 덮쳐'  
치킨업계 '이중가격제' 움직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가성비 'PB 치킨'으로 승부수

CJ제일제당·하림·오뚜기 등  
품질 상승 '냉동치킨' 다양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 곡물이 인  
상에 따른 닭고기 가격 상승, 여기에 배  
달앱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또 한번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닭  
고기(육계)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약  
3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상  
승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오르  
내리면서 사료와 부재료의 단가에 영향  
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닭고기 생산비  
용이 증가, 도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  
계엄 전인 11월 초 2780원~3100원을 형  
성하던 닭고기 시세는 꾸준히 상승 곡  
선을 그리며 이달 들어 2980원~5100원  
까지 올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달 수수료 부



서울의 한 치킨 등 판매 식당 입간판 모습.

른 업종까지 흐름이 쉽게 이어질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제 프  
랜차이즈가 아닌 대형마트 PB 치킨과  
냉동 치킨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마트는 2022년 9980원짜리 '생생  
치킨'으로 주목을 끈 데 이어, 2024년에  
는 가격을 더 낮춘 6480원짜리 '어메이  
징 완벽치킨'을 출시하며 승부수를 던  
졌다. 이마트의 치킨류 매출은 2022년  
전년 대비 43.8% 증가했고, 2023년 1~  
7월에도 15%의 성장률을 이어갔다.

홈플러스는 '당당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000만 마리를 넘기며 대형마트 PB 치킨  
중 가장 강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롯  
데마트 역시 월평균 6만 개 이상 팔리는  
'뉴한통가야아득치킨' 시리즈로 후발주  
자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또 가격 경쟁력, 간편 조리, 품질 개  
선이라는 3박자를 갖춘 냉동 치킨도 프  
랜차이즈 대체제로 자리매김했다.

시장조사업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냉동 치킨 시장 규모는 약 1641억  
원으로, 2022년(1410억 원)보다 10% 이  
상 성장했다. CJ제일제당의 '고메소바  
바치킨'은 출시 18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시장 확대를 이  
끌었다. 여기에 하림, 오뚜기 등 식품  
대기업들도 앞다퉈 신제품을 선보이며

제품 다양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냉동 치킨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이  
다. 대형마트 기준 한 팩에 5000~8000원  
선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의 절반 이하 가  
격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에어프라이  
어만 있으면 15분 내로 바삭한 치킨이 완  
성되는 조리 편의성도 한몫한다.

과거 '딱딱하고 꽉꽉한 맛'으로 저평  
가반면 냉동 치킨은 최근 제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품질도 대폭 개선됐  
다. 급속 냉동 기술을 활용해 식감과 육  
즙을 살리고, 바삭한 튀김옷과 다양한  
시즈닝으로 '갓 튀긴 맛'에 근접한 제품  
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마트 PB 치킨과 냉동 치킨의 인기는  
단발적인 유행이 아닌 소비 구조의 변화  
로 익힌다. 고품질 고급리로 허리띠  
를 줄라맨 소비자들에게 마트 치킨은  
하나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으며, 유통  
업계 역시 이를 주력 상품으로 끌어올  
리며 레시피 개발과 품질 차별화에 나  
서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생  
산비와 배달 수수료 부담이 계속 커지  
는 상황에서 치킨 가격 인상과 이중가  
격제 도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  
다"며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해 대형마  
트나 냉동 치킨처럼 가성비 상품 개발  
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  
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칠성음료, 성수·잠실서 '740 스트리트'

칠성사이다 제로 740 스트리트 이벤트  
'중앙감속기' 등 협업식당 8곳 참여  
팝업스토어·굿즈 만들기 등 진행

롯데칠성음료가 '젤로 맛있는 맛집  
거리, 칠성사이다 제로 740 스트리트  
(Street)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  
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공개된 칠성사  
이다 제로 광고에서 내세운 '젤로 맛있는  
제로, 칠성사이다 제로' 슬로건에 이  
어 '젤로 맛있는 맛집 거리'라는 콘셉트  
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준비됐다.

740 스트리트는 칠성(7), 사이다  
(4), 제로(0) 각 단어 앞 글자를 떼 숫자  
를 의미하며 칠성사이다 제로의 특색을

거리 곳곳에 녹여 구성됐다.

롯데칠성음료는 1차 이벤트를 성수  
'연무장 길'에서 칠성사이다 제로 광고  
모델 '최현석' 세프가 운영하는 '중앙  
감속기' 업장을 포함한 총 8개 협업  
식당에서 4월 27일까지 운영한다. 2차 이벤  
트는 5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잠실  
'송리단 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연무장 길, 송리단 길 거리 곳곳에는  
740 스트리트를 알리는 깃발과 안내판  
이 설치되어 이벤트를 홍보한다. 거리  
중앙에는 740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칠성사이다 제로 시음, 포토존 체험,  
굿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  
한다.

협업 식당 외부에는 740 스트리트 포  
스터와 행사를 상징하는 아기자기한 소

품으로 꾸몄다. 식당 안에서는 후기  
이벤트를 통한 식사권 제공 행사를 진  
행해 칠성사이다 제로와 함께 즐기는  
젤로 맛있는 맛집 거리를 알린다.

또한 칠성몰 내 캠페인 사이트를 오픈  
해 룰렛 이벤트를 통한 칠성사이다  
제로 제품 증정권을 포함한 다양한 경  
품행사가 운영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칠성사  
이다' 검색 후 캠페인 사이트로 접속하  
면 확인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 740 스  
트리트 이벤트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제로 칼로리로 부담 없이  
즐기는 칠성사이다 제로의 청량하고 상  
큼한 맛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 CU, 맥주·하이볼 52종 최대 75% 할인전

이달 말까지 '치얼스 페스타'

편의점 CU가 본격적인 기온 상승에  
맞춰 4월 한 달간 맥주와 하이볼 할인  
행사인 '치얼스 페스타'를 펼친다.

CU는 총 52종의 맥주와 하이볼에 대  
해 최대 7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체 커머스 앱 포켓CU  
에서 치얼스 페스타 행사 상품을 결제  
한 후 지정한 편의점에서 원하는 시간  
에 꾸며진다.

이번 행사는 날개 상품과 번들 상품

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1~2인 가  
구의 소용량 니즈나 야외 활동을 하는  
나들이객의 대용량 니즈 등 필요에 맞  
게 할인된 가격의 주류를 선택할 수  
있다.

가령 1인 가구라면 중식 대가 여경래  
세프의 레시피를 적용한 '펑리 하이볼'  
을 무려 75% 할인된 가격인 1100원에  
구매하면 되고, 여럿이 모이는 경우에는  
'버드와이저 캔 500ml' 4입 번들을  
기준 보다 55% 저렴한 8800원에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신세계백화점 20일까지 '멘즈위크'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20일까지 남성  
고객들을 위한 '멘즈위크(Men's Wee  
k)'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멘즈위크'는 약 80여개의 남성 패션,  
잡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대거 참여  
해 약 200억 규모의 연중 최대 물량을 기  
획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는 신세계  
백화점 테마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는 최근 개인화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신세계백화점 단독으로 '맞춤  
정장 제작 서비스' 할인 프로모션을 진  
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세경 기자

내일부터 7일간 우리동네GS 앱서  
5km 7만원, 10km 7만5000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가 오는 15일부터 우리동네GS 앱에서  
'미니언즈 런 : 2025 서울' 티켓을 단독  
판매하며 문화 플랫폼으로써 본격적인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니언즈 런은 글로벌 인기 캐릭터  
미니언즈와 함께 달리는 이색 러닝 페  
스티벌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번 '미니언즈 런 :  
2025 서울'은 6월 15일 상암동 평화의공  
원 평화광장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15일부터 7일간 우리동네GS 앱에서 선  
착순 판매된다.

참가비는 코스별로 5km 7만 원, 10km  
7만5000원이며, 신한카드 결제 시 2  
만 원 즉시 할인된다. GS25는 참가자  
전원이 캐릭터 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GS25가 단독 판매하는 '미니언즈 런' 참가시  
미니언즈 굿즈가 제공된다.

미니언즈 유니폼 티셔츠를 비롯해 가  
방, 스포츠 타월, 헤어밴드, 번호판, 완  
주 메달 등의 굿즈를 제공한다.

GS25는 미니언즈 런 사전 예약 판매를  
기념해 미니언즈 생수(LL)와 바나나 2종  
을 출시하며, 이는 당일 참가자에게도 제  
공된다. 행사 당일 축하공연, 포토미션,  
미니게임, 경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  
그램도 진행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내달 8일까지 '선물샵' 운영

쿠팡이 어린이날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어린이날 선물샵'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고 다양한 장난감을 최대  
48%까지 할인한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이번 기획전에 아이들에게 인  
기 있는 캐릭터·인형·역할놀이 상품부  
터 '어린이(장난감 등을 좋아하는 어른  
을 이르는 말)'들을 위한 퍼즐·RC카 등

4000개 상품을 한데 모았다. 지난해보  
다 행사 기간을 2주 더 늘려 고객 혜택  
을 확대했다. 와우회원은 5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 2000원까지 추가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 주목할 상품은 ▲캐  
치터니핑 슈팅스타팩트 ▲헬로카봇 드  
릴버스트 로봇장난감 ▲산리오캐릭터  
즈 웨폰그리기패드 등이다. /이세경 기자

# IPO 나서는 'K뷰티'… 달바·미미박스 '글로벌시장' 도전장

**달바글로벌** 28일부터 수요예측  
내달 9~12일 공모주 청약 예정  
최소 356억4300만원 조달 방침

**미미박스** 연내 상장목표 추진  
전체매출 90% 해외시장서 거둬  
“2억 달러 자금으로 글로벌 발판”

국내 유망 뷰티 브랜드들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 매출 개선 등에 중점을 두며 'K뷰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1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코스피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달바글로벌은 지난 10일 공모일정 변경을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달바글로벌은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5월 9~12일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달바글로벌은 앞서 지난달 25일 일 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신주 종류와 수는 보통주 총 60만 4000주로, 1주당 최저발행가액은 5만 4500원이다. 이에 따라 달바글로벌은 최소 356억4300만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18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145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달바글로벌은 이번 정정 공시에서 자금 사용 세부 계획도 일부 구체화했다.

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중 약 109억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투자 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해



달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달바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아임미미'



/미미박스

지지 않았다고 밝혀 왔으나,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신사업 확장, 신규 브랜드 확보 등 비즈니스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달바글로벌은 현재 연간 실적 측면에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매출은 2021년 690억원에서 2024년 3091억원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약 65% 수준이다. 특히 2024년 기준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8% 급증하며,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45%로 늘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등 20여 개국에서 K뷰티를 대표하고 있다.

달바글로벌은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달바글로벌 측 관계자는 “오는 2028년까지 글로벌 매출 비중을 70%로 대폭 확장하고, 연간 매출 1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슈퍼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설명했다.

K뷰티 전문 기업 미미박스도 지난

해 상장주관사를 삼성증권으로 선정하며 기업공개(IPO)를 본격 추진해 올해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미박스는 창립 초기부터 실리콘밸리 유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조론스데일 팰런티어테크놀로지 공동설립자가 운영하는 8VC, 굿워터캐피털, 알토스벤처스, 스파크랩,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 등 실리콘밸리 대표 투자자들로부터 2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미미박스는 전체 매출의 약 90%를 해외 시장에서 거두고 있고, 북미 시장 매출 비중만 65%에 달한다. 2024년에는 첫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미미박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조정 후 영업이익(에비타, EBITDA)은 22억원이다. 미미박스는 미국 내 유통망 확보와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사업 구조 개선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놨다.

미미박스 측 관계자는 “2억 달러의 투자금을 활용해 미국과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현재 미국 내 10개 이상의 리테일러에 입점해 폭넓은 고객층과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며 “2025년과 2026년에는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국내 뷰티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K뷰티 대표 주자로 속속 입성한 브랜드들이 기업공개, 매출 개선 등으로 외형을 확장함에 따라 K뷰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화장품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소비재인 만큼, 현재 직면한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 특정 국가에서의 규제, 양국 관계 등 변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도 절실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더후'**  
**항노화 기능성 립밤**  
**'에센셜 립 글로우밤'**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에서 항노화 기능성 고발색 립밤 '에센셜 립 글로우밤(사진)'을 출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입술 노화를 관리하면서 메이크업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후 에센셜 립 글로우밤은 입술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막아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동백, 헴인, 목화씨 등 8가지 식물성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 촉촉함과 영양분을 공급한다.

LG생활건강은 실제로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을 2주간 사용했을 때 입술 주름이 33.7% 개선됐고, 30시간 동안 입술 보습 효과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더후 에센셜 립 글로우밤은 8가지 색상으로 선보여진다. 물론, 웜톤 등 개인 피부톤과 사계절을 바탕으로 세분화됐고 각 색상은 궁중의 꽃을 표현한다. 특히 제품 디자인에도 더후 브랜드를 상징하는 연꽃 장식 키링이 적용됐다.

더후 측 관계자는 “에센셜 립 글로우밤은 쉽게 거칠어지는 연약한 입술을 진정시켜 매끈한 동안 입술을 완성하는데 적합하다”며 “입술 피부의 안티에이징을 넘어 한번만 발라도 선명하게 피어나는 유리알 광택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전립선 건강관리에 필수”… 유한양행 ‘카리포맨’ 첫 선

**전립선비대증 ‘배뇨 장애’ 개선**

유한양행이 전립선비대장애 개선제 ‘카리포맨연질캡슐(사진)’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립선비대증에 따른 ‘배뇨 장애’를 개선하는 의약적 효능·효과를 갖췄다. 전립선비대증은 요도를 둘러싼 전립선이 비대해져 요도를 압박하는 질환이다. 야



뇨, 빈뇨, 잔뇨감, 소변 줄기 악화 등이 대표 증상이다. 증상을 방지하면 방광 기능 소실, 신장 손상, 방광 결석, 요로 감염 등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카리포맨연질캡슐’은 전립선비대증 발생에 관여하는 약물로 처방됐다. 주성분인 쿠쿠르비트종자유엑스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생성을 억제해 준다.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은 남성호르몬으로, 전립선 세포 성장을 촉진해 전립선비대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복용법은 하루 2회로, 1회 1캡슐을 섭취하면 된다.

유한양행 측 관계자는 “최근 전립선 건강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 이 늘어남에 따라 전립선비대증에 따른 배뇨 장애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립선비대증은 조기에 관리하면 삶의 질 저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했다.

카리포맨연질캡슐 복용법은 하루 2회로, 1회 1캡슐을 섭취하면 된다.

/이청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윤빛 라운지’ 운영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더 크라운서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0일까지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더 크라운에서 설화수 윤조에센스를 주제로 한 ‘윤빛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설화수 대표 제품인 윤조에센스는 정체된 피부 본연의 능력을 깨우고 피부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성 스킨케어다. 마치 태고난 듯 빛나는 ‘윤빛’ 피부를 가꿔주는 것이 핵심 효능이다.

윤빛 라운지는 팝업 형태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체크인 존’은 혁신적인 피부 진단 서비스를 통해 피부 순환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제품을 추천 한다. ‘윤빛 솔루션 존’은 피부 노화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돋는 전시 공간이다. ‘윤빛 순환 존’에서는 디스플레이 게임을 통해 윤조에센스만의 피부 순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윤빛 리추얼 존’에서는 스스로 빛나는 윤빛 피부를 경험하게 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백화점에서 윤조에센스 런레이 팝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5월 8~15일 현대백화점 목동점, 5월 16~22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등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이청하 기자

## 롯데홈쇼핑, 힐링 토크쇼 ‘김창옥쇼’ 연다

내달 14일 ‘쇼캉스’ 콘셉트 기획

롯데홈쇼핑이 상반기 최대 프로모션인 ‘롯쇼페(롯데홈 쇼핑 페스타)’의 일환으로 소통 전문가 김창옥과 함께하는 힐링 토크쇼 ‘김창옥쇼’를 연다.

이번 행사는 5월 1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리며, 토크쇼와 디너, 호텔 숙박이 결합된 ‘쇼캉스(쇼+호캉스)’ 콘셉트로 기획됐다. 14일부터 20일까지 롯데홈쇼핑 모바일 앱에서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600명을 초청한다.

50~60대 핵심 고객층을 겨냥한 감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단순 경품이 아닌 ‘기억에 남는 하루’를 제공하는 체험형 이벤트다. 응모권은 앱 방문 시 1장, 상품 구매 시 건당 3장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타임특가전 ‘오늘최강’, 브랜드 릴레이 행사, 최대 1만5000원 할인쿠폰 등 다양한 쇼핑 혜택이 마련된다. 단독 패션 브랜드 LBL은 여름 신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레포츠웨어와 캐리어 등 휴가 시즌 상품도 선보인다. 라이브커머스 ‘엘라이브’는 리조트와 골프 매장 등에서 현장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보령**

**신입·경력사원 공채**  
**21일까지 21개 직무**

보령이 오는 21일까지 보령 채용 사이트에서 ‘2025년 2분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R&D), 경영, 관리·약사 등 총 21개 직무다. 모집 이후 절차는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체우협의 및 채용검진,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채용은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 확장에 발맞춰 모집 분야 및 인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본사 근무 직무를 비롯해 광주·전남, 강릉, 경남, 창원 등에서 근무하게 될 전국 단위의 영업직군 채용도 이뤄진다.

충남 예산 소재 예산캠퍼스에서는 품질관리 약사를 모집한다. 예산캠퍼스는 보령의 최첨단 스마트공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유럽연합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해 고품질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령 측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 모집 및 육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ANGELINUS



## 중진공, '수출바로 프로그램' 참여 中企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수출바로 프로그램'은 신청부터 선정까지 1개월 이내 신속하게 바로(Barrer Zero) 지원한다는 의미로,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이다. /중진공



## 한식진흥원-종로구, '평생교육센터' 운영 맞손

한식진흥원은 종로구와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식진흥원은 '기회동 평생교육센터'로 지정되어, 한식 관련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왼쪽), 전해웅 한식진흥원 사무총장이 종로구와 '2025년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한식진흥원



## NH농협생명, FC·DM채널 연도대상 시상식

NH농협생명은 지난 10일 영종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FC·DM채널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2024년 한 해동안 우수한 실적을 거둔 FC, DM 채널의 설계사와 영업관리자, 지점장 등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왼쪽 두번째)가 FC 채널 연도대상 수상자인 세종천안 지점 유순자 FC(왼쪽 첫 번째)와 DM채널 최우수상 수상자인 서울복합지점 김동섭 FC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생명



## 용마로지스, 5년 연속 택배서비스 평가 'A+ 등급'

동아쏘시오그룹은 종합 물류 전문회사 용마로지스가 '2024년 택배 서비스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택배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 용마로지스는 기업택배 부문에서 A+등급을 획득했고,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쏘시오그룹



## OCI홀딩스, 시각장애인 마라톤 대회 봉사활동

OCI그룹 임직원들이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들과 함께 달리며 가이드러너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OCI홀딩스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소외계층돕기 제13회 행복한가게 마라톤대회에서 임직원 및 가족 80여 명이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이드러너, 플로깅 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OCI 임직원과 시각장애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OCI홀딩스

## 유한양행,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확대… ESG 경영강화

창립 99주년… 나눔·환원 정신 계승  
다문화 아이들 위한 동화책 낭독  
서울 노을공원서 나무 심기 등 활동

유한양행이 올해 창립 99주년을 맞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강화하는 가운데,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한양행 사업장별 봉사단은 상시 운영되어왔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지속 활발해지고 있다.

유한양행 임직원들은 자신의 재능과 특기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낭독봉사단, 취약 계층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하는 제빵봉사단, 시각장애인과 함께 달리는 가이드 러너 봉사단, 유기견·유



유한양행은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결성하고 서울 여의샛강에서 연 4~5회 생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유한양행

기묘 봉사단, 학습 도우미, 스포츠 멘토링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한양행은 올해 2월 소아암 환이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환이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투병생활을 지원했다. 3월에는 전 사업장에서 현혈 캠페인을 실시했고 현혈증은 소아

암 환아들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서울 노을공원에서 임직원이 직접 나무를 심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임직원 가족도 동참해 도시 녹지 조성, 단소 저감, 생물다양성 보존 등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안티풀라민, 해피홈 등을 담아 실용성을 높인 '나눔박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이러한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 요인에 의해 잠시 감소했었지만, 2024년 기준 연간 연인원이 3000명을 넘어섰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양행 창업 주 유일한 박사의 나눔과 환원 정신을 계승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오는 2026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건강한 내일, 함께하는 유한'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슬로건으로 정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농심, 亞 육상대회에 '백산수' 후원

구미亞육상경기선수권대회  
스폰서십 맺고 선수들에 생수 제공

농심은 지난 9일 구미시청에서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스폰서십을 맺고 대회 기간동안 선수들에게 제공할 공식 생수로 백산수를 후원한다고 13일 밝혔다.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육상연맹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육상대회로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농심은 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 45개국 선수단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동안 약 5만 병의 백산수와 파워오투 등 음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농심 관계자는 "아시아 최대 육상 축제인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백산수를 후원하기로 했다"며, "40년의 자연정수기간을 거치며 현대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한 깨끗한 물 백산수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1990년부터 구미시에 국내 최대 라면공장인 구미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심 구미공장은 2023년 기준 연간 약 8000억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며 구미시 대표 1위 식품회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주민 고용 및 구미라면 축제 참가 등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한화

김승연,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방문

〈한화그룹 회장〉

한화 이글스 창단 40주년 축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지난 11일 한화 이글스 야구단 창단 40주년과 신축 야구장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방문했다.

김승연 회장은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팬과 함께 이글스 40년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최강한화'의 뜨거운 함성에 가슴 뛰는 이글스만의 스토리로 보답하자"고 격려했다.

김승연 회장은 이글스 창단 이래 40년간 구단주를 맡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는 한화이글스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소문난 야구 마니아로 자주 야구단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팬들과 호흡하고 있다.

지난해 김승연 회장은 정규 리그 기간 중 9차례나 대전 이글스 홈 경기장을 찾았다. 방문 시 평소보다 높은 승률을 거둬 팬들로부터 김 회장은 '승리 요청'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LG생활건강, 청년기후환경 활동가 육성

'그린밸류 유쓰' 발대식

LG생활건강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에서 '2025 그린밸류 유쓰(YOUTH)'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기후환경 활동가 육성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린밸류 유쓰(YOUTH)는 LG생활건강이 에코맘코리아,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부와 공동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린밸류는 친환경 가치라는 뜻이다.

LG생활건강은 환경의 소중함을 차별적 고객가치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 '글로벌 에코 리더'라는 명칭으로 청년 활동가 발굴에 주력했고 2022년부터는 20세 이상 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 왔다.

올해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학생과 영국, 프랑스, 타이완 등 다양한 국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 청년 등 총 101명을 선발해 20개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기후



LG생활건강은 '2025 그린밸류 유쓰(YOUTH)'를 통해 국내외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대학교 캠퍼스와 지역사회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의 글로벌 캠페인 '타이드 터너 플라스틱 체린지(환경을 바꾸는 주역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도 동참해 폐기물 문제와 방안 모색에도 집중한다.

또 올해 사업은 멘트 프로그램이 보강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이 각 팀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기획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이청하 기자

뮤지엄김치간 재개관 10주년 기념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온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이 재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재개관 10주년 기념 행사 '김치 REMIX (feat. 뮤지엄김치간)'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뮤지엄김치간은 2015년 4월 21일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일반행정정책관 이용석 ◇안전환경정책관 송기진 ◇청년정책협력관 류승목 ◇규제총괄정책관 권혜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장 김규현 ◇과·팀장급△초광역협력과장 최태용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으로 이전·재개관한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뮤지엄김치간은 '어린이 김치학교'를 통해 10년간 약 6만명의 아이들에게 김치와 김장문화를 알려 왔다.

뮤지엄김치간은 재개관 10주년을 맞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신원선 기자

## 부음

▲김석환씨 별세, 김기세(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김기배(전 수원특례시 팔달구청장)씨 부친상, 김영호(경기일보 서울본사 정치부 기자)씨 조부상 = 13일,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205호, 발인 15일 오후 2시, 장지 승화원. 031-218-6560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을~~로 ~~안~~  
헬로렌탈로 **잘** 썼다!

요즘 **잘**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헬로렌탈  
바로가기 QR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http://rental.lghellovision.net)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게임 BGM 저작권 침해와 소멸시효 기산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임'은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 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하나의 저작물로 평가된다. 게임의 배경음악(BGM)의 경우에도 게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게임을 위해 별도로 창작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이미 창작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과정에서 제작자 등이 다른 저작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게임의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 선고돼 소개해 본다.

A사는 자신이 출시·유통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일부 장면에서 저작자인 B의 음원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B가 문제를 제기했고 A사는 해당 음원을 해당 게임에서 삭제했으나 그 삭제 시점까지 해당 음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부당이득이 문제됐다.

먼저 해당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해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그와 같은 이익은 혼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의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들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도 상고심(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가 인정됐다.

다만 A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문제됐다. 대법원은 상사 소멸시효기간(5년)이 아닌 민사 소멸시효기간(10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으나,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일)과 관련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날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

립하지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A사가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해 그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B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부터 해당 음원이 삭제된 시점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B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위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게임의 배경음악 등과 같이 계속적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용일별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되므로 그에 따라 시효 완성의 가능성성이 높아지게 된다. /법무법인 바른

## 세종시 르네상스



기자 수첩

김연세  
(정책사회부)

"대전을 행정부 수도로 만들겠다." 이는 1970년대 초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 대후반 충남 공주 장기면(지금의 세종 장군면)에 행정수도를 임시로 조성하는 안을 추진했다. 둘 다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천도론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무산됐다. 막이 오른 대선 전과 맞물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정견(政見)들이 나온다. 크게 세종으로 가느냐 아니면 청와대 복귀냐로 나뉘는 모습이다. 특히 세종 이전을 내건 출사표가 주목받는다.

집무실의 탈서울은 곧 수도 이전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내각책임제 국가) 집무

실이 위치해 있는 곳이 행정수도다. 만약 제1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즉시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아니다. 물론 남아공(행정수도 프레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루몬테인)처럼 수도가 3개인 나라도 있다. 세종이 행정수도가 될 경우, 서울은 국제금융 중심지 내지 입법수도 또는 사법수도로 남을 수도 있다. 단, 국회의사당의 경우 세종 분원이 5~6년쯤 뒤 설치된다.

3년 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에서 발표가 나왔다.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크게 놀랐다. 선거운동 기간 이에 대한 일언반구 언질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된 이전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도 꽤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 터져 나온 무속 논란은 많은 이에게 가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게임 및 파면으로 인해 다

시 또 이전이냐, 용산 진류나의 논쟁은 2년 당겨졌다.

걱정이 앞선다. 국민 상당수는 집담보·신용융자 원금과 이자 갚기에 허덕인다. 그런데도 집무실 이사비로 막대한 수준의 혈세가 사라졌다. 게다가 정치·사회적으로 아직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각 부문 복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수도 이전'이라는 명제까지 국민 앞에 띄우는 게 옳은가 싶다. 짧은 시간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에 개헌 논의도 연기됐다. 수도 이전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신중에 신중을 기해 시도해도 될까 말까 한 엄청난 쟁점이다. 여론의 중지도 시간을 두고 모아 가야 한다. 민심이 양극단으로 갈려 있다. 성급하면 화를 부른다.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서 생각하면 될 일이 있다. 용산에 남아야겠다면 늦어도 사전투표 전에는 유권자한테 알리는 것이 도리다.

/kys@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줄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2		9			6	
								9
9					3			
								1
						9		
7		2	6				4	
4	6							
		8				5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4				9		7	8	
5		7		4				
				8		5		
1	3							
5						4		
1	3							
9	2							
2	7	6					5	

오늘의 운세  
4월 14일 (음 3월 1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으니 서두르지 말도록. 48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60년생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편지 않다. 72년생 인의예지가 상식이 되도록 자녀교육에 힘쓰자. 84년생 재산이 는다고 인색하지 마라.

**소**  
37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49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의미 없는 일. 6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을 조심하도록. 73년생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했다. 85년생 옥심이 너무 과하여 낭패를 본다.

**호랑이**  
38년생 흉재수가 있으니 재운도 있다. 50년생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소중히. 62년생 무지개를 좋아가니 잡하지 않는다. 74년생 돈은 없으나 지혜의 힘이 있다. 86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하자.

**토끼**  
39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현실 직면. 51년생 인내하다 보니 삶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선다. 63년생 자동차 무연하는 주의. 75년생 심재에 대비하여 '참을 인' 자를 새기자. 87년생 오랜 적선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서서히 돌아온다.

**범**  
40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52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는 날. 64년생 먼저 주는 것이 더 큰 것을 얻는다. 76년생 실수를 줄이니 상황이 나아지고 새로운 것을 손에 준다. 88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

**말**  
41년생 누구나 아픔은 있다. 53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는 더 어려운 시간. 65년생 손님에게 기쁜 소식을 듣는다. 77년생 신중한 마음으로 통제를 해야지 누가 해주겠는가. 89년생 그동안 노력의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양**  
42년생 자신 있는 일을 맡아 온종일 불편. 54년생 재산상속의 기쁨이 있다. 66년생 평소에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8년생 천을 귀인에 해당하는 귀인을 만나는 행운이. 90년생 서북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어 길을 따난다.

**원숭이**  
43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도 무리가 없다. 55년생 누구에게나 지고이기는 법이 있다. 67년생 운세가 상승하니 용기를 내서 추진. 79년생 비고면서 운을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잘하자. 91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닭**  
44년생 마음이 즐거워니 몸도 가볍다. 56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68년생 농담도 사람 봄바에 해야. 80년생 결국에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92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개**  
45년생 빌려준 돈이 선물 되어 들어오는 날. 57년생 극성 부모가 되려 하지 않도록. 69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는 있으나 영업의 이득은 빛날. 81년생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실력을 키워라. 93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카진다.

**豕**  
46년생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 58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자절로 들어온다. 70년생 선배의 도움으로 일을 처리. 82년생 누구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은 봐주기가 싫어지니. 94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돼지**  
47년생 꽂고 새가 지저귀니 행운. 59년생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한 일진. 71년생 집 청소로 환경을 바꾸자. 83년생 밤사이 안녕이란 말이 있으니 여행길은 다음으로. 95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는 법이니 마음을 비우도록 해야만.

## 김상회의四季

금을 찾아서

황금만능 시대는 언제부터일까? 옛적부터 사람들은 돈을 쫓아 헤맸다. 선사시대에는 더 많은 짐승을 사냥해서 그 고기와 가죽을 얻고 뼈로는 무기를 만들어 더 용맹해짐을 재산으로 여겼다. 그러다 곡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저장의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각각의 산지에서 나는 고유한 먹거리나 필수품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물물거래를 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믿을 수 있고 간편한 교환수단을 찾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화폐 탄생의 이유가 된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곡식 같은 농산물은 물론 소금이나 조개껍질 같은 것이 재화의 교환수단이 된 것이며, 시대가 발전해가면서 나라에서 신용을 담보하는 동전이나 엽전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다.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라마다 자국의 화폐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화폐들의 국제거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금본위 제도가 생겼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일련의 대처를 정부 효율 부수장으로 임명했는데, 그는 미국 켄터키 폭스노스 지하 금고에 금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세계 금값이 출렁거렸다.

미국은 세계 제1위 금 보유국으로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8,800만톤의 금이 바로 켄터키 폭스노스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내용만으로도 세계 금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필자의 앞선 글에서도 은행의 탄생에 관한 배경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럽이 은행 탄생의 선조가 된 것도 중세 이후 제국주의가 발현되면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다 보니 상대적 재화거래의 안정성과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을 대체할 만한 실물가치를 대변하는 재화는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5651 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1755 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1분기 글로벌 기술규제 역대 최다 국표원, PP 유예 등 애로해소 총력

〈폴리프로필렌〉

WTO 회원국 1334건 통보  
전기전자·에너지분야 규제 급증  
김대자 원장 “TBT 애로 적극 해소”

미국 등 주요국의 기술규제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분기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다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세계 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334건(12.0%)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미국·EU·중국 등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규제 건수 증가율이 전 세계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제시한 기술규제 건수 역시 1년 전의 1.5배로 크게 늘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안전규제를 비롯해 에너지효율규제 등을 강화했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 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등이다. 또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9.4%(102→132건) 증가했다. 미국은 올해 1분기 규제 건수 기준



1위에 올랐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하여 23.4%(64→79건)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 등을 개정했다. 특히,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 규제가 급증함에 따라 1년 전 같은 분기(14건)와 비교해 올해(28건) 건수가 100% 늘었다.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 새로 제시한 규제도 지난해 1분기 16건에서 올해 40건으로 150% 증가했다. 이 밖에 대만 +66.7% 일본 +23.1%, 사우디아라

비아+125%, 아랍에미리트+250%, 칠레+309.1% 등이다.

그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에 따른 올해 1분기 실적으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켰다.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올해 3월)하고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장비에 대한 안전, 통신, 라벨링 등의 기술요건 및 적합성 인증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이다. 국표원은 의견 수렴일은 4월 25일까지이며, 업계가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표원의 김대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며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농식품부, 외국인 등 가축방역 교육 강화

‘가상농장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  
중국어·베트남어 등 8개 언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신규진입 축산농장주를 대상으로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특히 한국어를 비롯해 8개 언어를 지원한다. 외국어판은 영어와 중국어, 네덜란드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로 제작됐다.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근로자가 자국의 언어로 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교육 수료증

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은 이달 14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교육 수료증을 받은 축산농장에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경감 또는 필수 방역교육 이수 시간 인정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흥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해당 인터넷 주소만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사항 ▲축종별(소·돼지·가금) 방역요령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외부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을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이 시범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주관한다. 교육 관련 문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획혁신실이나 거주지 인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본부·사무소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고용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E-9)

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이다. 제조업이 1만632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2347명), 어업(2077명), 조선업(625명), 서비스업(596명),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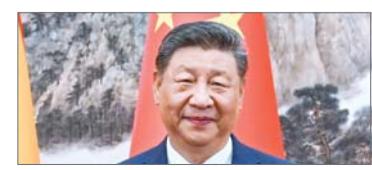
(445명) 순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명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트럼프 행정부, 연내 불법이민자 100만명 추방 목표”

▲ 美, 우크라이나에 ‘러-유럽 가스관’ 관리권 추가 요구



▲ 미군, 예멘 전국에 10차례 폭격… “공격작전 지속될 것”

▲ 시진핑 관세전쟁 후 첫 발언 “어떤 부당한 억압도 두렵지 않아”



6.25전쟁 75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강정애 국보훈부 장관이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보훈요양원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를 표하고 있다.

/국보훈부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 집중점검

사고예방 시설 적정설치 여부 등 확인

환경부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된다. 범정부 차원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 하나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양 취

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해 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도 함께 점검 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해수부, 내달 전국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참여

및 유통, ▲대형업종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해안은 ▲업종별 어구 사용량 초과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포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남해안은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금어기·금지체장 어획률 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동해안의 경우 ▲암컷대개 불법포획

/세종=김연세 기자

### 오늘의 날씨

해뜸 / 05:59 | 해짐 / 19:06

4월  
14일 (月)  
음력 : 3월 17일

수도권 날씨	4 ~ 10 °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유명 일본 진통제 국내 반입 금지…마약류로 분류돼

▲ 우크라 참모본부 “러시아, 개전 이래 인명 피해 93만여명”

/사진 뉴시스



치킨가격 '들썩'  
가성비·맛 잡은  
마트·냉동제품 인기  
L1

달바·미미박스  
글로벌시장  
도전장  
L2



## “위기론보다 ‘구조적 흐름’으로 부동산 시장 기록할 것”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 은 형 연구위원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구조를 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45)은 지난 18년간 건설과 부동산이란 두 축을 동시에 다룬 전문가다. 정책과 시장, 제도와 기업, 사람과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으며 ‘균형 있는 실천’이란 신념을 지켜가고 있다.

원래 부동산 전문가가 될 생각은 없었다. 건강 문제로 원하는 진로를 접고 우연처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제도 분석이 주된 일이었지만, 이 연구위원은 현장의 흐름을 읽는 데도 집중했다.

기업 간 거래(B2B) 마케팅 프로젝트를 통해 부동산시장 구조를 분석하며 정부 정책이 기업에 작용하고, 다시 시장 심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체감한 경험은 지금도 차별화된 분석의 초석이 됐다.

그는 “이론이 현실에 닿는 지점을 보고 싶었다”면서 “정책이 숫자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을 바꾼다는 걸 믿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과 부동산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제도권 전문가로서 그는 지금도 가장 앞단에서 시장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

### ◆ “시장은 위기와 기회, 반복된다”

이 연구위원이 시장에서 신뢰받는 이유는 단순한 분석 때문이 아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만의 확신을 지켜온 태도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시장에는 건설업 위기론이 돌았다.

당시 그는 경기부양 필요성에 따라 공공 발주가 늘어나면 오히려 건설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위기라고 해야 이야기 거리가 된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위원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시장은 언제나 사이클이 있습니다. 조정기와 회복기는 반복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자극적인 담론엔 선을 긋는다.

부동산 폭락론, 건설업 위기론처럼 반복되는 프레임에 갇히기보다는 구조적 흐름을 읽는데 집중한다. 사람의 감정이 아닌 시스템의 움직임을 보는 것. 그것이 이은형 연구위원의 방식이다.

그 안엔 하나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진실된 올바름.

그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 누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터뷰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자원 기자

“

18년간 건설·부동산 다룬 전문가  
‘진실된 올바름’ 철학으로 구조 분석

부동산 시장, 조정·회복 사이클 있어  
감정 아닌 시스템의 움직임 관찰해야

정책, 조절수단 아닌 신뢰조건 돼야  
정책조정 필요하지만 혼란 줘선 안돼  
‘수요자 중심’ 부동산시장 바라볼 것

### ◆ 규제보다 구조, 본질을 짚는 시선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규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에 대해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개발 예정지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지금처럼 도심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위축시키지만 시장의 근본적 방향은 대출조건과 공급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는 “대출이자는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한도는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기준이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의 설계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이라 이를 설명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정책이 방향을 잊으면 시장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책은 단순히 조절 수단이 아니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이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중심이다. 구조와 맥락을 짚지 않고는 시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오랜 신념이다.

### ◆ 산업의 진화, 그리고 사람의 몸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을 ‘타 산업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인프라 산업’으로 본다. 도시의 기반을 만들고 산업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산업이란 설명이다.

최근 불거진 건설업 위기론에 대해서도 단순한 해석을 경계한다. 그는 “건설사가 몇 개 부도났다고 해서 건설업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제도적으로 이미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공사이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고, 실제 위기는 방만하거나 무리한 경영을 했던 일부 기업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최근의 사업다각화 흐름에 주목한다.

그는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수소관련 산업까지, 돈 많은 건설사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시행 역량을 탄탄히 쌓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산업은 구조에 따라 진화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건 결국 준비된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연구자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본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이 국민적·국가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정하는 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삶에 혼란을 주는 방식이어야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면 실수요자들은 더 불안해진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에 대해 “누구나 다 집을 가질 수는 없다. 다만 자신에게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청약제도, 장기전세, 정책금융상품 등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면서도 그 구조가 얼마나 실효적인지 꾸준히 점검해 왔다. 언젠가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실무 중심의 강의를 해보고 싶다는 소망도 있다.

그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도를 겉는 사람들이 모이면, 시장도 제길을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길을 계속 지켜보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자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 토토넘 감독, 손흥민 재계약 질문에 “지금은 그럴 시기 아냐”

▲ 불붙은 KIA 위즈덤, 홈런 2방 폭발…7개 아치로 단독 선두

/사진 뉴시스

▲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정관장 꺾고 PO 첫 승…92.6% 확률 잡았다

▲ 남자배구 현대캐피탈, 내부 FA 박경민 계약 체결

▲ 강풍 뚫은 김민주, KLPGA 투어 iM금융오픈서 첫 우승

▲ 올해 마스터스 골프 총상금 300억원…우승 상금 60억원